

정책연구 2005-22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

2005.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21세기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양성평등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사회 발전은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을 꾸준히 등장시키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자신들의 지위향상에 대하여 소극적 요구에서 적극적 요구로 발전시키고 있다.

1975년 UN의 ‘세계여성의 해’ 선언은 여성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여성을 통합’ 시키는 차원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 항목이 ‘젠더’로 변화되었다. 여성이 더 이상 보호를 받아야하는 특수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복지 차원’의 수혜자에서 젠더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반영은 여성전략의 전환으로 ‘성인지적 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양성평등을 행동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여성을 위한 정책은 WID전략에서 GAD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 정부의 적극적 활동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설립(1998), 여성부설립(2001)등이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제정 및 여성특별위원회설치(2000)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전국 최초의 여성정책자문 및 정책제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지난 2005년 여성정책센터 설치를 통해 전문적으로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제주도의 여성정책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실현’을 목표로 여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선포함에 따라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지역사회에 있어 양성평등지표의 개발은 여성은 물론 남성 삶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변화된 여성의 지위 척도를 확인하고 여성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제시된 지표가 현재를 살아가는 제주여성의 삶을 반영하고 앞으로 제주여성의 삶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2005. 12.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고 부 언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양성평등 논의와 양성평등지표: 국내·외 동향	4
1. 양성평등 이념의 등장과 개념	4
2. 성불평등의 현황(가정,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5
3. 양성평등 논의의 국내·외 동향	8
1) 여성과 발전(Women in Development, WID): 여성주의적 관점	
2) 성과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GAD): 성인지적 관점	
3) 성주류화(Mainstreaming, MS): 성통합적 관점	
4. 양성평등지표 논의와 국내·외 주요 동향	14
1) 양성평등지표의 개념	
2) 양성평등지표 개발 동향 (국제적, 국내 개발 동향 등을 중심으로 서술)	
III. 제주지역 양성평등지표 개발	17
1. 지역단위 양성평등지표 개발의 의의	17
2. 양성평등지표의 구성체계	17
3. 양성평등지표의 선정기준	21
IV. 부문 영역별 양성평등지표	23
1. 가정부문	23
2. 정치부문	40

3. 행정부문	46
4. 경제부문	54
5. 교육부문	65
6. 사회참여부문	72
7. 사회복지부문	81
8. 정보화부문	89
V. 결론 : 양성평등지표의 활용 및 과제	91
참고문헌	93

표 목 차

<표 1> 제주도 지방의회 여성의원 현황	6
<표 2> WID, GAD 접근법의 비교	10
<표 3> GAD와 성 주류화 접근법	12
<표 4> 양성평등지표구성체계	17
<표 5> 양성평등지표 설정의 가이드라인	21
<표 6> 출생성비	23
<표 7> 전국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24
<표 8> 제주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25
<표 9> 시도 가족계획 실천율 및 인공유산경험률	26
<표 10> 성별가사분담 및 시간	27
<표 11> 가사시간	27
<표 12> 가사노동 분담상태	28
<표 13>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교육정도별 태도	29
<표 14>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연령별 태도	30
<표 15> 재혼건수 및 재혼비율	31
<표 16>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시설현황	32
<표 17> 성차별에 대한 인식	33
<표 18> 전국 성별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	34
<표 19> 제주도 성별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	34
<표 20> 자동차 보유 가구수	36
<표 21> 가구당 월평균 소득	36
<표 22> 건강관리 주된방법	38
<표 23> 성별 여가시간	39
<표 24>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40
<표 25>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41
<표 26> 국회의원 입후보 및 당선자수	42
<표 27>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및 당선자수	42
<표 28> 전국 여성위원 참여현황	44
<표 29> 제주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44
<표 30> 제주도 여성위원 참여현황	44
<표 31> 통장·주민자치 위원 여성참여 현황	45
<표 32> 주요 부서의 여성공무원 현황	47

<표 33> 공무원 여성수 비율	48
<표 34> 직급 및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수	49
<표 35> 직급별 공무원 현황	50
<표 36> 5급이상 송별공무원	50
<표 37> 5급이상 제주시 여성공무원현황	51
<표 38> 제주도 여성 전담부서 총예산	53
<표 39> 여성관련조례	54
<표 40> 전국 성별 월평균 임금 총액 및 여성임금비	55
<표 41> 제주도 성별 월평균 임금 총액 및 여성임금비	55
<표 42> 전국 성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56
<표 43> 제주도 성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56
<표 44> 여성취업자수	57
<표 45> 직업별 취업자 분포	58
<표 46> 산업별 취업자 분포	59
<표 47> 여성 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비율	60
<표 48>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61
<표 49> 산업 및 사업체 남녀 대표자별 사업체 분포	63
<표 50> 노동조합 가입현황	64
<표 51>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66
<표 52> 성별 취업알선 비율 및 취업률	68
<표 53> 평균교육년수	70
<표 54> 성별 진학률	71
<표 55> 학급별 성별 교원수	72
<표 56> 성별 자원봉사 참여율	74
<표 57> 성별 경제활동주이	75
<표 58> 성별 사회단체참여도	76
<표 59> 전국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77
<표 60> 제주도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77
<표 61> 운영주체별 보육시설수	79
<표 62> 10세 이하 자녀의 양육시설 실태	80
<표 63> 가구의 세대별 분포 및 평균가구원수	81
<표 64> 전국 노인복지 시설의 수용현황 및 여성비율	82
<표 65> 제주도 노인복지 시설의 수용현황 및 여성비율	83
<표 66> 제주도 성별 장애유형	84
<표 67> 여성복지시설수	85
<표 68> 전국 성별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현황	86

<표 69> 제주도 성별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현황	86
<표 70> 혼인상태별 여성가주조 분포	87
<표 71> 제주도 성별 저소득 한부모가구	87
<표 72> 제주도 사회보장비 세출예산규모	88
<표 73> 성별 컴퓨터 사용능력	90

그림목차

<그림 1> 양성평등지표 도입에 따른 효과 측정	20
----------------------------------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등장한 젠더(gender)문제는 여성문제에 있어 초기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성평등을 위한 성주류화 개념으로 한층 발전하고 있다. 이는 차별성 극복과 개선 방법으로 여성정책이 적극적 패러다임으로 진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발전전략은 1975년 UN의 “세계여성의 해” 선언을 계기로 남녀평등 발전전략에 있어 ‘여성을 통합’ 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항목으로서 젠더’로 전환되었다. 이를 위하여 접근방법은 ‘복지적 차원’에서 젠더적 요구를 반영시켜 ‘성인지적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한 요구들이 강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지는 제4차 북경 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적극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GAD전략을 국가차원의 적극적 행동강령으로 채택하게 되면서 각국은 여성정책기구의 설치 운영을 본격적 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하였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앞에서 논의 하였듯이 행동전략으로 양성평등을 강하게 표방하였다. 여성정책에 있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여 기존의 여성특수주의 WID전략에서 젠더중심의 GAD로 변화하였다. WID전략은 여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이 당시 국가의 활동은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설립(1998),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1999), 여성부 설립(2001), 성매매방지종합대책(2002) 등 정부의 정책적 활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 후 GAD전략의 도입으로 여성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중심으로 변모하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역할변화를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증진시킨다는 입장이다. 젠더 접근은 성주류화를 필요로 한다. 주류의 영역에 젠더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궁극적인 성평등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여성전략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였다. 변화를 추진하는 세력으로서 지역사회 여성은 지역여성 지위향상에 대한 기대와 요구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요구는 지방자치 도래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지역 현실에 맞는 여성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초기 제주도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전국 최초 여성정책자문 및 정책제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 관련 기구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0년 1월 조례의 제정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여성사 발간 및 다양한 여성문제를 발굴하고 여성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WID전략으로 양성평등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성 주류화가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여성을 여전히 주변부로 인식하는데 그쳤다.

2005년 제주도의 여성정책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목표로 여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선포함에 따라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제도에 있어 성 주류화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세부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해 성 주류화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주사회는 다양한 시대적 변화를 겪어 왔다. 육지부와 다르게 여성의 지위가 다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에 대한 평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양성평등지표의 개발은 여성은 물론 남성의 삶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변화된 여성의 지위 척도를 확인하고 지표화 함에 따라 여성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 될 수 있다. 연구에 제시된 지표들은 양성평등지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롭게 수립되는 지표들은 양성평등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양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하여 가정, 정치, 행정, 경제, 교육, 사회참여, 사회복지 등 크게 8개 부문으로 영역화 하였다. 각 부문영역은 다시 관심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련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가정부분은 6개 부분으로 남아선호, 가사노동, 가족해체 및 형성, 사회화와 교육기회, 소득 및 재산, 건강 및 여가활동으로 세분화 하였다.

정치부분은 3개 부분으로 대표성, 참여도, 권력배분으로 세분화 하였다.

행정부분은 3개 부분으로 조직 및 인사, 예산 및 통계, 자치행정으로 세분화 하였다.

경제부분은 3개 부분으로 취업여건, 취업안정성, 의사결정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교육부분은 3개 부분으로 양성평등교육, 능력개발 교육 및 재정, 학교 교육으로 세분화하였다.

사회참여부분은 3개 부분으로 참여역할, 전문직 활동, 양육여건 등으로 세분화하였

다.

사회복지부분은 권익, 복지여건, 건강관리로 세분화 하였다.

정보화부분은 컴퓨터문맹(사용여부)정도로 지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각종 통계자료, 타·시도의 각종 지표개발 사례와 정책자료 문헌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양성평등 논의와 양성평등지표: 국내·외 동향

1. 양성평등 이념의 등장과 개념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지위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등하고 그 결과 또한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여성과 남성으로 성(sex)을 부여받으며 이에 근거하여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사회화된다. 성차별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sex)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이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제도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차별적 관행은 오랜 세월 남성과 여성을 억압과 지배의 구조로 인식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등장한 페미니즘(Feminism)은 라틴어 페미나(femina, 여성)에서 파생된 말로서 본래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것은 서구 근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남녀평등이론 또는 여성의 권리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페미니즘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운동이나 그 이론을 지칭하고 있다.

결국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해방을 이루고 나아가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념이나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페미니즘도 일반적인 학문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성차별의 원인이나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이론의 구분은 결코 절대적으로 단정지울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페미니즘 담론들 간의 경계는 절대적이기 보다 상대적이며, 중층적이거나 상호융합적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연구자의 관심이나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적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법·제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자유주의페미니즘(Liberal Feminism),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Marxist Feminism), 출산과업·자매애 등을 주장한 급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 성과 계급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페미니즘(Socialist Feminism), 개인 심리상태를 출발로 인성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Psychoanalytic Feminism), 탈근대의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생태주의를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 등으로 끊임없이 양성평등을 도출해 내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구축되었다.

이론을 바탕으로 성평등은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 절대적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성중립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상대적 평등은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평등이 시작된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 혹은 절대적인 어느 하나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평등은 양성간의 똑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을 정의하자면 모든 인간은 고정된 성역할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에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단지 문서상의 법적·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헌법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제4항)는 규정과,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항)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성평등을 전개하기 위한 정책은 몇 가지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가 남녀에게 동등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결과의 평등” 과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와 수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기회의 평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기획과 수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다른 삶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조건의 평등” 이 수반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은 결국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것이며, 양성평등지표의 개발은 이러한 양성평등이념의 달성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다.

2. 성불평등의 현황

1996년 여성주간이 첫 시행된 이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10년 전과 비교해 체감 성평등 지수는 현저히 높아졌으나, 실제 삶 속에서의 ‘성평등’ 을 살펴 보면 여성은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불평등한 삶을 평가하는 국제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UNDP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한국여성의 불평등을 확인 할 수 있다. 1995년 인간다운 삶의 질을 의미하는 인간개발지수(HDI)의 경우 우리나라는 174개국 가운데 31위, 남녀평등지수(GDI)는 130개국 중 37위, 여성의 사회진출을 의미하는 여성권한척도(GEM)은 116개국 중 90위로 나타났다.

이후 2004년 인간개발지수(HDI)는 177개국 중 28위, 남녀평등지수(GDI)는 144개국 중 29위, 여성권한척도(GEM)는 78개국 중 68위로 발표됐다. 인간개발지수, 남녀평등

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수준이나 여성권한척도에 있어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하여 UNDP는 한국 여성들이 선진국에 비해 정치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국적인 분석은 제주도 여성의원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1> 제주도 지방의회 여성의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광역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합계	여성	비율	합계	여성	비율	합계	여성	비율
1998년(제2회 지방선거)	14	-	-	-	-	-	-	-	-
2002년(제3회 지방선거)	16	-	-	3	2	67%	-	-	-

자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정치영역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권한척도의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36.4%인데 반해 한국은 5.9%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02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청)에서 여성의 72.2%가 사회생활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을 통해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불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정치 부분에 있어 열악한 실정과 달리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발전의 영향으로 경제부분에 있어 관리·전문직 여성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9%로 95년 48.4%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남성의 74.6%의 참가율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 경제참가 구조는 여성은 전형적인 M형을 남성은 역U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은 20대 중반까지 상승하다 30~34세까지 결혼과 육아로 빠른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만혼의 증가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최저연령이 25~29세였던 것이 30~34세로 이동하였다.

2003년 직업별 여성 취업자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 20.3%, 상점과 시장판매자 16.9%, 사무근로자 16.4%, 단순노무자 12.3%순이며 의원·고위임직원은 0.4%에 그쳤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과 일용직에 있어 여성의 경우 1997년 27.1%, 10.0%에서 2003년 31.0%, 11.4%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여성취업자의 임금근자 비율은 66.6%이며, 이 가운데 상용은 24.4%, 임시는 30.6%, 일용은 11.5%로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비정규직 편중성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임금수준 또한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빈곤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고용시장의 악화는 물론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은 여성들의 이중노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초기 ‘일이나 가정이나’를 선택 해야했던 여성들은 오늘날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병행해야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돌봄노동, 감정노동, 경제활동 등 모든 부문에 있어 완벽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미지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재생산은 기혼여성에게 주부이면서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들의 미혼 상태를 지속하게 하거나 만혼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들에게는 직장이 우선시 되며, 가족이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가족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암묵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2004년 자녀가 있는 여성 가운데 결혼 후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4%로 중단 사유는 자녀양육이 64.9%, 출산에 따른 직장에서의 불이익 12.6%, 가사일 전념이 8.4%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모 가운데 33.9%가 취업중단의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66.4%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데이¹⁾운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움직임은 가정 내 뿌리 깊은 가부장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발하게 한 요인으로 여성의 대학진학률, 고학력자 증가 등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그 원인을 함께 찾을 수 있다. 1985년 37.02%였던 여성의 학사 학위 취득 비율은 1995년 42.0%, 2004년 50.4%로 증가했다. 여성의 석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1985년 18.5%에서 1995년 28.4%로 2004년 41.4%로 198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울러 박사학위 취득의 경우 1985년 10.2%에서 1995년 16.9%, 2004년 24.4%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시장에 있어 여성의 진입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별 여교수의 비율은 전임강사 29.7%, 조교수 20.4%를 제외하면 총(학)장, 교수, 부교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기회에 있어 2004년 68.5%가 미충족을 느끼고 있다. 이 가운데 66.5%가 경제적 형편으로 미충족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은 가정 내에 있어 교육 혜택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

양성평등사회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가정·

1) 육아데이는 2005년 9월 6일 여성가족부 처음 실시하였으며, 매월 6일로 되어 있다. 부모, 어린이집, 기업, 정부가 함께 보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기업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정시퇴근을 배려하고, 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의 보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시간을 가지게 되며, 보육시설은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각 부문이 유기적 체계로 운영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사회·학교·직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성 불평등의 구조는 쉽게 사라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각 분야의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가정이나 직장·일상생활에서 성체감에 따른 평등지수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²⁾.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 주류화를 위하여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 출범된 여성부(2005년 여성가족부로 부처 확대)를 중심으로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양성평등진흥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연구 센터와 여성관련 학과 등도 여성의 지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도적 차원의 성불평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족법의 개정과 실질적인 법의 활용, 교육 기회의 실질 보장, 여성의 기술 교육 향상, 고용 기회의 평등, 교육과정의 개편, 호주제 폐지³⁾, 여성기회의 확대, 출산휴가에 대한 법개정 등의 방법이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성(性)관, 가족관, 사회관을 포함하는 가치관의 재정립이 꾸준히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3. 양성평등 논의의 국내·외 동향

1) 여성과 발전(Women in Development, WID): 여성주의적 관점

WID는 발전 속의 여성접근으로 1970년대 초 보즈럽(Boserup)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Boserup, 1970). 보즈럽은 여성을 경제발전과정에 통합하는 평등을 주장하였다. 1975년부터 1985년 UN의 여성운동은 이러한 접근을 적극 지지하였다. 즉, 발전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근대화 이론과 선형적이고 직선적인 발전이론의 영향을 적극 수용하여 여성에게도 교육과 더 나은 경제 환경을 제공하자 하는 목적을 우선하였다. 여성의 불평등은 성별에 따른 분업구조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공적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수용하였다.

WID적 접근은 평등이외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우선 5-60년대 ‘복지(welfare)’ 접근으로 여성의 일은 재생산 영역에 한정되어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을 저개발의 희생자로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선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통합(integration)’ 접근으로 여성이 남성과 같은 발전의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여성을 발전에 통합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접

2) 여성가족부의 2001년 『한국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 의식조사 보고』에 의하면 당시 가정의 남녀평등체감지수는 62.5점, 직장에서의 남녀평등체감지수 54.6점으로 조사되었다.

3) 호주제는 2005년 3월 민법 개정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근은 여성이 어디로 통합되어야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비판받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세력화(empowerment)' 접근으로 이안에 '젠더 플래닝(gender planning)', '자주(autonomy)',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에 의한 대안적 발전(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이 있다.

'젠더 플래닝'은 캐롤라인 모서(Caroline Moser)를 중심으로 발전사업에 있어 여성의 재생산, 생산, 공동체 운영 등이 전략적 젠더 요구에 부응하거나 실천적인 것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서 전략적 젠더 요구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분석함으로써 드러내고, 실천적 젠더 요구는 여성의 젠더적 위치로부터 드러나 실제적 조건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젠더 플래닝은 정부의 여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징함으로써 자체적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자주(autonomy)'는 물리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젠더 플래닝이 지닌 지배적 발전 패러다임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사회정치변화에 대하여 '아래에서 위로' 방식으로 앞서 논의된 '세력화(empowerment)'에서 한 단계 전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에 의한 대안적 발전(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은 제3세계 여성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이다. 서구 페미니즘이 백인중산층 여성을 위주로 일어나 다양한 여성의 상황을 담아 낼 수 없다는 지적이 여성운동계에 등장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제3세계 여성들은 그들의 현실에 맞는 발전의 개념을 그들의 시각, 경험 그리고 행동에서 재평가하고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연결하고 가난한 여성들의 가사 차원의 경험을 거시경제적 정책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WID적 전략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제한적인 수준에서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을 중심으로 특별사업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가족계획, 요보호 여성의 복지, 건강, 영양, 소득 증대 등으로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여성내부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성과 성 불평등의 역사성이 간과되고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 취약한 여성의 지위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기관과 관료들의 완강한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전개한 전략적 내용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내로서 여성의 역할을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을 뿐이다. 또한 여성은 발전과정의 수혜자로 인식하였다. 결국 WID적 전략을 통해 궁극적인 남녀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성과 발전전략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2) 성과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GAD): 성인지적 관점

1985년 나이로비에서 제3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채택된 전략은 여성과 발전의 문제를 젠더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 성향을 지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켜 WID적 접근이 여성을 발전과정에 통합시키면서 특정된 분야에 한정시키고 여성을 행위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안의 다양한 계급, 인종,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사이의 역학관계와 구조적 측면에서 젠더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젠더접근(GAD)은 여성중심접근(WID)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음 <표 2>와 같은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표 2> WID, GAD 접근법의 비교

	WID	GAD
접근법	발전계획과 정책에 여성의 부재를 문제로 간주	성 불평등에 초점을 둔 발전법
초 점	여성	여성과 남성간의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관계 특히 여성의 종속에 초점을 둠
문 제	발전과정에 생산자원인 여성의 배제를 문제로 간주	균등한 발전과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부와 빈곤, 여성과 남성)
목 표	여성을 포함하는 보다 효율적인 발전	여성과 남성이 정책결정자로 참여하는 균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해 결	기존의 발전과정에 여성을 통합	불이익집단과 여성의 힘을 증진시키고 불평등한 관계를 전환시킴
전 략	-여성프로젝트 중심 - '여성' 캠페인 -통합프로젝트 -여성의 생산성과 임금증대 -기구를 돌보기 위한 여성의 노력증진	-성 불평등을 고려하는 발전과정의 재개념화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에 의하여 결정된 실질적 요구의 규명 및 제기, 동시에 여성의 전략적 이해 제기 -사람 중심의 발전을 통한 빈민의 전략적 이해제기

<표 2>에서 나타나듯이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삶이지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정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GAD에서는 젠더관계의 역학과 구조를 고려하고 여성과 남성의 생산적 활동은 물론 재생산 활동까지 함께 분석하여 사회조직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WID전략에서 여성이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객체로 인식되었으나 GAD전략에서 여성은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GAD전략은 사회구조와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남성주도의 권력분배와 통제방식을 해결해야할 근본 문제로 인식하였다.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높이고,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사회

화하고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에서 훈련하고 신용을 키울 수 있도록 젠더 3 관계를 새롭게 편성하는 노력들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인식되는 발전은 사회, 경제적 변화과정을 개인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진보와 관련된 모든 복합적인 과정에서 찾고 있다. GAD접근에서 여성문제 및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적용되는 분석도구는 8가지가 있다.(정순영 외, 2004 재인용)

① 성별 노동분업: 어떤 특정한 업무와 책임은 남성 혹은 여성에 의하여 전형적으로 수행된다. 이렇게 성별에 기반 한 활동 및 책임의 할당은 그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의하여 학습된다. 이는 성 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이다.

② 노동형태: 여성과 남성은 생산, 재생산, 공동체 등의 주요 3개 노동 영역에 참여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부분 재생산노동을 차지하고 생산노동의 많은 부분을 수행한다.

③ 자원 및 혜택에 대한 접근기회와 통제: 여성의 중속적 지위는 자원과 혜택에 대한 접근 기회와 통제를 제한 할 수 있다. 여성의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는 가질 수 있어도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은 토지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어도 장기적인 사용 혹은 소유권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

④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위의 세 개 부문에서 나타나는 성 관계는 사회에서 시간을 두고 변화한다. 많은 요인들이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면서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성 관계는 경제, 환경, 종교, 문화의 변화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⑤ 상황과 지위: 여성의 이상적 환경과 사회에서의 지위 간에 구별이 될 수 있다. 여성의 '상황'은 위생적인 식수, 식량, 교육 등과 같이 그들이 경험하는 직접적 영역의 물질적 상태를 말한다. '지위'는 남성에 대하여 상대적인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말하며, 남녀간 임금 및 고용기회의 격차, 입법부의 참여, 빈곤 및 폭력에의 취약성 등으로 측정된다. 발전활동은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상황에 초점을 둔다.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발전과 변화의 행위자로서 남성과 함께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한 능력을 촉진하는데 관심은 주어지지 않았다.

⑥ 실제적 요구 및 전략적 요구: 실제적 요구는 여성의 상황과 연결된다. 실제적 요구는 식량 및 식수, 아동의 건강 및 교육, 임금증대와 같은 직접적 요구와 관계된다. 이들 요구의 충족은 전략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 능력의 전제조건이다. 여성을 위한 전략적 이해는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서 생겨난다. 전략적 이해는 장기적이며 지위 향상과 관련한다. 예를 들면 여성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지도록 힘을 증진시키며, 자원에의 접근기회 증대, 의사결정에 남성과 보다 평등한 참여는 전 세계 남성과 여성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에 있는 것이다.

⑦ 참여의 정도: 보다 성인지적인 정책의 입안은 참여자, 수혜자, 행위자로서 여성과 남성의 참여를 요구한다. 여성의 의사결정 능력과 지위가 증가된다면 여성의 혜택

을 뚜렷해진다.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역설하도록 조직력을 키우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고려될 때 지원을 받는 수동적 수혜자로서의 여성은 변화의 행위자가 된다.

⑧ 전환을 위한 잠재력: 여성의 종속적 지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며 모든 여성이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성 불평등과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에 부과된 한계에 여성들은 도전해 왔다. 여성의 투쟁을 통해 많은 이익이 얻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전환적인 과정은 보다 나은 생활을 만들어내고, 성 불평등을 역설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

Young은 인간의 노동시간이 자유로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진보 사회로 인식하였다(Young, 1993). 결국 GAD전략은 여성을 종속과 불평등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여성의 세력화를 통한 남성과의 균등과 평등을 이룩하는 것이 가정이 아닌 정책과정에서 이미 탈가부장제를 선언함으로 적극적 ‘도전적인’ 여성전략으로 볼 수 있다.

3) 성 주류화(Mainstreaming, MS): 성 통합적 관점

성 주류화는 제4차 여성대회에서 처음 공식화 되어 행동전략으로 채택되었다. WID 전략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GAD전략 역시 실제 전략으로 많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각 정책기관들이 성인지적 관점이 없고 젠더 경영을 위한 훈련이 부족하며, 근본적으로 젠더가 통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법론적이며 실천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 이슈를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성 주류화(Mainstreaming, MS)’ 를 채택하게 되었다. GAD와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GAD와 성 주류화 접근법

	GAD	성 주류화
초 점	기회, 참여 혜택에서의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비교, 차이를 발생시키는 성관계	모든 주류 영역에서 제도적 메커니즘 개발 및 성 중심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
문제의 이해	성 불평등 : 여성의 발전에의 참여를 저해하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여성이 무보수 차원의 개발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인식결여	모든 부문과 차원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참여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제도적 편견: 정책,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제도적 조정의 결여;남성의 성 역할과 양립하는 제도적 환경
해 결	성별분리 통계 활용, 무보수 근로의 가치산정, 성 이슈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성 훈련,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격차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성 분석 활용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에 여성참여 확대 촉진을 위한 제도적 변화: 주류의 모든 영역에 성 분석, 성 통계, 성 주류화 기술 등의 제도화 주류의 모든 영역에 남성과 평등하게 여성의 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조직적 변화

그렇다면 주류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류화란 주류가 아닌 사람이나 사상을 주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성의 주류화는 여성의 사회적 배제, 여성의 사회적 주변화를 문제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여성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성 주류화는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GAD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류화⁴⁾는 여성의 주류화, 성의 주류화, 주류의 전환을 단계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여성발전 전략으로 성 주류화를 채택하였다.

물론 정부의 성 주류화 전략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2001년 출범한 여성부의 영어명칭이 MOGE(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 ‘성평등부’임에도 ‘여성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 WID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여성정책의 주류화는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모든 수준,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 성 평등의 시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을 평가, 개발, 개선, (재)조직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성 주류화는 정책과정이 재조직되어 일반적인 정책 담당자들이 젠더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젠더에 대한 지식이 정책과정 안으로 조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주류화는 차이와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더욱 포괄적인 성 평등의 정의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성 주류화에 대한 또 다른 정의로 유엔경제이사회(ECOSOC)는 1997년 문서에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는 “평등한 기회의 차원을 모든 정책과 행동에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방법”이며, “젠더 시각을 모든 유럽 정책형성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이들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성 주류화를 위해 모든 정책과 조치를 동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성과 남성을 위해 모든 공동체 정책과 행동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문서’에서 세 분야로 정리되어 나타내고 있다. 첫째, 여성의 시각으로 평등한 사업을 위한 더 많은 기금 조성 and 불평등한 사람들을 위한 자

4)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an)는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는 기술적인 용어로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은 일부 여성이 토근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정책의 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결과로 주류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여성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를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만드는 방법을 바꾸어보자는 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원의 재분배, 둘째, 평등 대우시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성 균형, 마지막으로 젠더 시각으로 가정과 일 그리고 가족생활간의 조화를 보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성 주류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 주류화 정책의 중요성은 우선 성별을 떠나 사람들을 정책결정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이며, 둘째, 더 많은 좋은 정보가 담긴 정책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성별을 떠나 인적자원을 완전 활용하는 것이며, 넷째, 성 주류화는 사회의 주류 내에서 성 평등 문제를 가시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남성과 여성내부에 각기 존재하는 다양성의 인정으로 여성 내부의 상이한 집단이 처한 각각의 상황에 보다 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 주류화를 위한 방법은 정책기구와 법·제도의 정비, 기금과 인적자원의 확충,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성별통계의 구축,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 정책의 성 분석, 정책의 모니터링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성이론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여성정책의 발전과정은 남녀분리에서 통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성별분리 정책이 더 이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서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위한 지표개발은 여성은 물론 남성 삶의 질을 지표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되기도 한다.

4. 양성평등지표 논의와 주요 동향

1) 양성평등지표의 개념

지표체계는 체제의 조건과 변화의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며 측정도구로, 그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인 구체적 지표통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지표는 가치나 목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계측하고, 관련 특정 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모든 여타 형식의 증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김검훈 이갑숙, 2005 재인용)

양성평등지표는 그 사회에서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양성간의 평등에 대한 현재적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의 방향은 물론 변화의 정도까지 파악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양성평등지표는 측정의 기준이며, 평가의 기준이다. 이때 통계와 지표를 비교할 때 단순한 자료를 계수화 하여 정리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나아가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으로 성별분리통계와 차별화 시킬 수 있다.

성별분리통계는 양성평등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며, 양성평등지표는 정책 및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도 및 성공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과 척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양성간의 사회적 평등 실현 상태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측정함으로써 총체적

제시는 물론 지역사회가 지닌 양성평등의 정도 또는 양성평등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 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양성평등목표와 차별성을 지니기도 한다.

양성평등지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정부의 정책을 수립 평가하는 사회정책기능, 사회조건의 변화를 측정하는 사회변동적 기능 및 사회적 조건과 사회생활을 전달하는 사회보고적 기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사회정책기능은 사회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수립과 설정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정한 정책을 평가하는 기능이다. 두 번째, 사회변동적 기능은 사회적 조건을 측정하고 여성의 삶과 일상생활조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표를 보완하며, 사회변동을 측정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보고적 기능은 사회체계의 개선과 장래에 있을 만한 여성문제와 생활상태를 예측하는 기능이다.

결국 양성평등지표는 지역사회가 앞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정책을 집행하며, 어떻게 변화해 나아갈 것인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2) 양성평등지표 개발 동향

양성평등지표로는 유엔홍보국(UNDPI)이 1995년부터 여성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를 발표하고 있다. 그와 함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가 발표되고 있으며, 여성의 현재 지위를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005년 발표에 의하면 여성개발지수(GDI)는 17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국가가 노르웨이이며, 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캐나다가 순으로 우리나라는 28위를 차지하였다(UNDPI, 2005).

GDI는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초-고진학률, 소득차이를 지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GEM은 여성의 의회점유율,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 소득차를 가지고 권한척도를 측정한다. GEM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며,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순으로 우리나라는 80개국 가운데 59위로 발표되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여성의 의회참여 비율이 높다는데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위 지표는 세계적으로 국가를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적은 국가는 여성의 권한 척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와 반대로 교육에 대한 열의로 취학률의 높은 비율은 남녀평등의 지표로 활용될 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학률의 비율에 있어 대학이나 전문직으로 연결되는 전공 선택이 양성평등으로 변모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양성평등의 지표는 매우 침체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국가와 지역에 맞는 양성평등지표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삼고 각 국가의 실태를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정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지표화 됨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얻게 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현재 모든 자원과 사회 인프라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하고 전국이 지역간의 격차를 최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양성평등한 관점의 정책 개입이 중요하게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행정단위의 정책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양성평등한 상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양성평등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수준에 있어 대전광역시가 2005년 5월 양성평등지표를 최초로 발표하였다. 이들이 구축한 양성평등지표 체계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참여, 교육, 6개 부분에 20개의 측정자원과 47개의 측정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전양성평등현장에서 언급된 부분을 세분화 하여 전개한 것으로 공무원, 시민 등 사회구성주체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요인으로서 '공적 인식'을 측정하여 양성평등도시 실현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개발하였다.

그 외 각 지역에서 양성평등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통계로 지역의 여성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주도도 지역여성통계가 발행되고 있다.

Ⅲ. 제주지역 양성평등지표 개발

1. 지역단위 양성평등지표 개발의 의의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시도해 오고 있다. 육지부에 비해 척박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농업, 어업 등 다양한 생활터전에 여성의 역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양성평등지표를 개발한 대전광역시는 여성이 살기 행복한 도시로 ‘양성평등헌장’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의 수준을 미리 선정하였다.

이처럼 지역 여성이 갖는 삶의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에 적합한 양성평등지표의 개발은 통합적인 양성평등지표 개발에 우선되어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에 맞는 양성평등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며, 그것은 고정된 지표가 아닌 성 주류화의 전개에 따라 양성평등을 점검할 수 있는 유연한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을 위한 통계생산, 각종 보고 등에 있어 양성평등한 관점의 확산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양성평등지표의 구성체계

제주도 양성평등지표 개발은 지역사회와 공적 부분에 있어 양성평등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표의 구성체계는 8개의 부문영역과 27개의 관심영역, 그리고 각각의 관련지표와 그에 해당하는 주요 집계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부문영역은 1)가정 2)정치 3)행정 4)경제 5)교육 6)사회참여 7)사회복지 8)문화활동 및 정보화로 양성평등지표의 구성체계는 <표 4>와 같다.

<표 4> 양성평등지표 구성체계

부문영역	관심영역	관련지표	주요집계항목
(1) 가정	남아선호	출생성비	연도
		남아선호도	연도, 출생순위별 성비
		(여아)인공임신중절을	가족계획실천율, 인공유산경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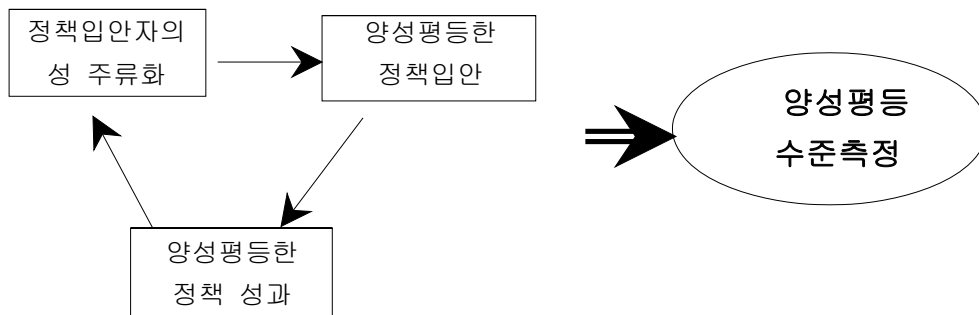
부문영역	관심영역	관련지표	주요집계항목
(1) 가정 (19)	가사노동	가사노동시간	성별, 가사내용별
		가사노동분담 정도	연령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상태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교육정도별, 성별, 연령별
	가족해체 및 형성	성별 재판이혼제기 비율	
		성별 재혼율	연도, 성별
		가정폭력 상담지원정도	연도, 시설별
	사회화와 교육기회	자녀의 성역할에 대한 교육	연도, 성별
		자녀의 성별 교육기대 수준	연도, 성별, 교육기회 미충족 사유별
		성별 자녀교육 목적	
	소득 및 재산	성별 부동산, 자동차 소유비율	차종별, 보유대수별
		성별 저축계좌, 신용카드 소유비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성별 재산세 납부비율	
		성별 상속세 납부비율	
	건강 및 여가활동	성별 건강검진율	건강관리 방법
		성별 주당평균 여가시간	성별, 여가유형별
성별 여가 만족도		성별, 만족여부별, 불만족이유별	
(2) 정치 (7)	대표성	여성단체장의 임용률	자치단체별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행정서비스 현장의 양성평등 명시 여부	
		여성의원 비율	연도, 의회별
	참여도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권력배분	위원회의 양성위원 비율	연도별, 위원회별, 도·시·군별
		주민자치위원회 양성위원 비율	성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양성비율			
(3) 행정 (12)	조직 및 인사	양평등정책 전담조직의 운영	
		인사관련위원회 여성공무원비율	부서별
		여성공무원 채용비율	연도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여성인력의 직급별 비율의 유지율	연도, 직급별
		5급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	성별, 직급별
		해외교육훈련 여성공무원 참여비율	

부문영역	관심영역	관련지표	주요집계항목
(3) 행정	예산 및 통계	성인지적 예산의 도입	
		여성정책관련 예산비율	연도, 전담부서별
		성별 분리통계의 생산	
	자치행정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연도, 유형별, 위원회별
		양성관련 자치법령 제정 및 지침 개선 정도	조례별, 제정일
(4) 경제 (12)	취업여건	남녀 임금격차	연도, 성별
		비정규직 여성비율	연도, 성별,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률	연도, 성별, 직업별, 산업별
	취업안정성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율	
		여성기업인 정책지원 비율	여성기업인 비율
		성별 평균 근속년수	
	의사결정	결혼, 임신, 출산 전후의 퇴직자 비율	연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관리직의 여성비율	
		창업자 중 여성창업자 비율	연도, 성별, 산업별
		기업조직 내 여성임원 비율	
		각종 조합 내 여성임원 비율	노동조합 가입현황
	여성 CEO 비율		
(5) 교육 (10)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교육 및 과정의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횟수	성별, 근로여건별
	능력개발 교육 및 재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여성중심 프로그램의 운영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비율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실시횟수	
		여성취업알선 비율	연도, 성별, 교육정도별
		재교육사업 예산 중 여성재교육 사업비 비율	
	학교교육	성별 평균교육년수	연도, 성별, 연령별
		성별 대학진학률	성별, 각급학교별
		학교교원 성별비율	연도, 학교급별

부문영역	관심영역	관련지표	주요집계항목
(6) 사회참여 (12)	참여역할	여성활동 지원비율	
		여성 국제교류지원율	
		NGO상근활동가 중 여성회원 및 단체장 비율	
		여성자원봉사 참여율	연도, 성별, 활동상태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연도, 성별
		시민단체 내 여성참여비율	연도, 성별, 사회단체별
	전문직 활동	전문직 내 여성비율	연도, 성별, 직위별
	양육여건	출산휴가제도 남녀이용률	
		육아휴가제도 남녀이용률	
		보육시설 확충비율	연도, 운영주체별
직장보육시설 확보율		10세 이하 자녀의 양육실태	
(7) 사회복지 (8)	권익	요보호여성 비율	여성 1인 가구수, 편모·편부 가구수
		남녀 노인복지서비스 비율	연도, 시설별, 수용인원
		남녀 장애인복지서비스 비율	성별, 장애유형
	복지여건	여성편익시설 설치 비율	연도, 서비스별
		성별 공적부조대상자수	연도, 성별, 연령별
		한 부모사업 지원비율	혼인형태별 여성가구주 분포
		사회복지예산 대비 여성복지서비스예산 비율	사회보장별
건강관리	건강증진관리 지원비율		
(8) 정보화 (1)	정보활용	성별 컴퓨터 활용정도	연도, 성별, 사용능력별

각 영역은 <그림 1> 과 같이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림 1> 양성평등지표 도입에 따른 효과 측정



3. 양성평등지표의 선정기준

8개 영역의 양성평등지표는 일반적인 여성의 지위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생산되고 있는 통계를 기준의 틀로 삼았다.

지표로 삼기 위하여 측정부분과 지표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양성평등지표 설정의 가이드라인

측정부분	양성평등지표설정 가이드라인
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에 있어 자녀에 대한 기대를 통해 가부장제 문화 - 가정내에 있어 사회화와 교육 -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자립도 - 가족구성원의 자아존중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영역의 권력획득을 위한 여성참여 - 공적 영역에 있어 여성의 의사표현 - 공적 영역에 있어 권력배분 정도
행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전담 조직 운영과 양성의 동등한 참여 - 여성관련 재정 및 예산 운용 - 양성평등을 위한 자치행정 추구 정도
경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에 있어 양성의 동등한 참여 - 평등한 고용기회와 대우 보장 등 여건 - 직장 내 양성평등한 의사결정 과정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한 교육의식 함양 - 교육기회확대와 생활 속의 평등문화 정착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한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 양육여건의 개선(육아, 가사노동 가치 인정) - 여성의 전문직 활동 지원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여건 마련 - 여성의 권익 보호 - 건강보건 여건 마련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사회에 있어 정보화 활용기반 마련

양성평등지표의 가이드라인의 설정은 현재 생산된 지표들을 평등의 관점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논의될 양성평등의 수준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역 실정에 있어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이 통계 생산의 부족으로 논의 되지 못하는 점이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서 우선 양성평등의 수준을 가늠하고 앞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시발점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

다음 장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자세한 지표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제주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양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V. 부문 영역별 양성평등지표

1. 가정부문

1) 남아선호

(1) 출생성비

□ 지표의 정의

출생아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연도별 출생성비는 남아편중 현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이를 통해 자녀 출산에 대한 성별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의 정착 정도를 추측할 수 있음

□ 실태

1985년에 121.0으로 전국의 성비 109.5에 비하여 높은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보였으나, 1999년까지 점차 완화되다가 2000년에 105.6으로 전국의 성비 110.2보다 낮은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보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다소 개선되어 짐. 그러나 2001년에 111.2로 다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현재까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실정임

<표 6> 출생성비

(단위: %)

구분	1985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제주도	121.0	118.8	112.0	110.8	105.6	112.2	118.4	110.6
전국	109.5	116.5	113.3	109.6	110.2	109.0	110.0	108.7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 제언

가정 내 양성평등 지수에 있어 출생성비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전국적으로 출생성비의 비율이 점차 완화 되고 있음에도 지역에서 여전히 출생성비가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 성비불균형은 물론 남아선호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

춤. 따라서 양성평등한 사회 문화 조성을 통해 출생성비의 격차를 완화시키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함

(2) 남아선호도

□ 지표의 정의

출생자녀에 대한 남아선호 정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호주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계승계를 위해 아들을 바라는 전통이デオ로기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 남성의 가치를 우위에 놓는 남아선호 사상은 여성의 성취동기를 제한하여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발휘하기 위한 자아실현의 길을 제한함. 인구구조에 있어 성비 불균형은 출생순위별 출생성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남아를 낳기 위해 계속 출산을 하는 것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등 다른 행태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함. 출생순위별 출생성비를 통해 지역의 남아선호도 측정할 수 있음

□ 실태

전국적인 추세는 출생순위에 있어 성비 차가 줄어들고 있음. 제주도의 출생순위별 출생성비를 살펴보면, 2001년 다소 심화 되었으나 넷째 자녀이상의 경우 181.0의 출생성비는 2000년의 224.2보다 낮은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보임. 2003년 첫째 자녀의 출생성비는 105.4로 2000년의 115.7보다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둘째 자녀, 셋째 자녀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임. 반면, 넷째 자녀이상의 출생성비는 다시 불균형이 심화됨

<표 7> 전국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연도	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이상
2000	110.2	106.2	107.4	143.9(셋째 자녀 이상)	
2003	108.7	104.9	107.0	136.6(셋째 자녀 이상)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표 8> 제주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연도	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이상
1995	112.0	107.8	105.8	136.3	203.8
2000	105.6	98.0	103.9	121.2	224.2
2001	111.2	109.8	104.6	125.8	181.0
2002	118.4	115.7	108.3	149.4	161.5
2003	110.6	105.4	105.7	132.8	198.1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 제언

남아 선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문화적인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3) (여아)인공임신중절을

□ 지표의 정의

가부장적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 감별에 의한 여자 태아의 낙태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아 임신중절률은 여성호주를 인정하는 법적장치와 성별감별의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가족법과 문화적 가치가 일상생활에 있어 얼마나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함. 이를 통해 여아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캠페인 전개와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개정 방향을 모색 할 수 있음

□ 실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시 할 수 없으나 ‘출생성비’ 지표는 남아초과 현상의 심화를 보여 줄 수 있음으로 여아의 낙태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음.

시도 인공유산경험률은 인공유산의 이유나 당시 태아의 성감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나 가족계획 실천율이 70.4%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소자녀관이 정착 되는 가운데 아들선호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음. 1997년 현재 제주도는 52.1%로 전국 44.2%보다 높은 수준임

<표 9> 시도 가족계획실천율 및 인공유산경험률

(단위: %)

시도	실천	비실천	인공유산경험률
제주도	70.4	29.6	52.1
전국	80.5	19.5	44.2

□ 제언

이를 위한 보건관련 인공임신중절률에 대한 통계산출이 필요함. 아울러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의 강화와 각종 홍보사업의강화가 필요함

2) 가사노동

(1) 가사노동시간

□ 지표의 정의

가정에서 행해지는 노동력의 일상적인 재생산활동 시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가사노동의 영역은 다양해지고 가사노동방식도 간편화되어 점차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임. 가사노동의 어떠한 영역에 각각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자발성이나 책임의 분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정 내 성역할 구분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실태

아직까지 가사분담 비율은 집 관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행위자별 시간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가족 돌보기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집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남성은 집 관리와 가정경영에 여성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표 10> 성별 가사분담 및 시간

(단위: %, 시간: 분)

구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시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음식준비 및 정리	78.9	16.2	1:40	0:37
의류관리	51.6	3.7	0:51	0:35
청소 및 집관리	67.6	23.2	0:49	0:27
집관리	9.7	11.9	0:33	0:43
물품구입	27.1	9.6	0:39	0:29
가정경영	6.2	3.4	0:20	0:23
가족보살피기	37.3	15.6	1:56	1:19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표 11> 가사시간(1999)

(단위: 시간: 분)

	평균 가사 시간	가정관리							가족 보살 피기
		소계	음식 준비 및 정리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물품 구입	가정 경영	
제주 여	3:16	2:33	1:19	0:26	0:33	0:03	0:11	0:01	0:43
남	0:34	0:22	0:06	0:01	0:06	0:05	0:03	0:01	0:12
전국 여	3:20	2:40	1:25	0:24	0:32	0:03	0:13	0:02	0:41
남	0:29	0:20	0:05	0:01	0:06	0:05	0:03	0:01	0:08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2) 가사노동분담 정도

□ 지표의 정의

부부를 중심으로 가사노동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정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 무임노동으로 간주해 온 사회통념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이 됨. 꾸준히 늘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가정에 있어 가사노동 분담 비율을 높이기보다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취업의 이중부담을 안겨 주는 실정임. 가사노동분담 실태는 가정 내 여성의

지위 및 성불평등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함

□ 실태

2002년 평소 가사부담 상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부인’ 이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인전담’, ‘공평하게 분담’ 순으로 나타남.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부인 전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주로 부인이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 상태나 연령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경향과 큰 차이가 없음

<표 12> 가사노동분담상태

(단위: %)

교육, 경제활동	부인전담		주로 부인		공평하게 분담		주로 남편		남편전담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초졸이하	39.8	34.6	44.8	46.5	10.4	13.1	4.4	4.6	0.7	1.1
중졸	37.2	31.3	49.9	50.0	8.4	10.0	3.7	8.7	0.7	-
고졸	38.8	31.0	52.4	51.8	6.8	11.8	1.8	4.8	0.4	0.5
대졸이상	33.9	29.9	56.7	64.4	8.3	5.8	0.8	-	0.3	-
취업자	33.3	30.0	53.1	50.7	10.1	12.7	3.3	6.6	-	-
실업자	37.6	39.8	53.1	60.2	7.3	-	1.9	-	0.7	-
비경제활동인구		36.2		54.3		7.3		0.4		1.7
15-29세	43.0	26.4	48.6	58.0	5.9	12.9	1.7	2.7	0.7	2.7
30-39	29.1	28.2	58.0	58.4	11.2	9.6	1.3	3.1	0.5	0.7
40-49	40.7	39.1	50.9	42.2	6.7	12.9	1.4	5.9	0.4	-
50-59	37.3	26.1	51.9	55.6	7.4	10.4	3.1	7.8	0.4	-
60 이상	36.8	36.3	49.9	48.2	9.0	10.3	3.6	3.5	0.7	1.8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3)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 지표의 정의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양성이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음. 교육정도별, 경제활동별, 연령별로 살펴봄으로써 최근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가정 내 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사회화의 태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그러나 의식의 변화와 달리 일상생활의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가족 내 갈등적 상황은 심화 될 수 있음.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 사회적 인식제고 및 실질적 제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실태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2003년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주로 부인이’ 51.7%, ‘공평하게 분담’이 33.8%, ‘부인전담’이 7.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남편’도 5.5%로 나타나고 있음.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부인’, ‘부인전담’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공평하게 분담’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부인전담’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주로 부인’이나 ‘공평분담’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함. 학력별로 살펴보면 주로 부인전담(‘주로 부인’ 포함)에서 대졸이상이 94.3%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82.8%, 중졸 81.3%, 초졸 81.1% 순으로 나타남. 특이한 점은 고졸이상의 학력에서 주로 남편이 전담한다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표 13> 가사분담에 대한 교육정도별 태도(2003)

(단위: %)

교육, 연령	부인전담	주로 부인	공평하게 분담	주로 남편	남편전담
전국					
여자	5.1	56.2	35.9	2.4	0.4
남자	9.5	61.4	25.2	3.3	0.7
제주 전체	7.9	51.7	33.8	5.5	1.1
여자	6.9	48.6	29.4	4.5	0.6
남자	9.0	55.2	27.6	6.5	1.7
초졸 이하	16.1	49.6	27.4	5.2	1.7
여자	18.9	50.6	25.8	3.9	0.8
남자	9.0	47.1	31.4	8.5	4.1
중졸	5.9	46.4	39.7	6.4	1.7
여자	2.6	43.8	45.1	6.3	2.2
남자	8.6	48.6	35.1	6.4	1.2
고졸	5.5	54.3	33.6	6.1	0.5
여자	1.6	50.2	42.4	5.7	0.0
남자	9.3	58.3	25.0	6.4	1.0
대졸 이상	5.6	53.7	35.8	3.9	1.1
여자	1.1	46.1	51.4	1.3	0.0
남자	9.0	59.3	24.0	5.8	1.9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표 14>가사분담에 대한 연령별 태도(2003)

(단위: %)

교육, 연령	부인전담	주로 부인	공평하게 분담	주로 남편	남편전담
15-19세	1.6	26.7	70.9	0.7	0.0
여자	0.0	23.4	75.2	1.4	0.0
남자	3.3	30.0	66.7	0.0	0.0
20-29	2.7	49.0	45.1	2.4	0.9
여자	0.6	42.0	53.6	3.8	0.0
남자	5.1	56.9	35.3	0.8	1.9
30-39	7.4	58.2	28.1	4.4	1.9
여자	1.1	55.8	39.1	2.7	1.3
남자	13.3	60.4	17.8	6.1	2.4
40-49	8.2	56.0	25.9	8.4	1.5
여자	6.9	51.5	32.0	8.5	1.1
남자	9.4	60.2	20.0	8.4	2.0
50-59	7.1	60.4	23.2	8.4	0.8
여자	5.0	60.2	28.5	5.4	0.9
남자	9.2	60.7	17.9	11.5	0.8
60 이상	17.7	48.0	26.5	7.2	0.6
여자	22.6	48.3	24.9	4.3	0.0
남자	9.7	47.6	29.2	12.0	1.5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3) 가족해체 및 형성

(1) 성별 재판이혼제기 비율

지표의 정의

재판이혼에 있어서 이혼을 제기한 성별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이혼은 여성에게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의 꾸준한 증가는 여성의 지위상승과 더불어 이혼에 대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변화되고 있는 현실의 반영임. 따라서 현행 가족관련법에서 나타나는 가족이념에 가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고 양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

여야함

실태

성별 재판이혼 제기 비율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계 생산이 필요함

(2) 성별 재혼율

지표의 정의

총 혼인에 대한 성별 재혼의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이혼의 증가는 한 부모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재혼가족을 출현시킴.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조 및 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호주제 등,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

실태

성별 재혼율은 전체적으로 양성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고 늘어났으며 2003년 다소 감소하였음. 성별로는 1995년까지는 남성이 더 높았으나 그 후로 현재까지 여성의 재혼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표 15> 재혼건수 및 재혼비율

(단위: 건수, %)

연도	재혼수				총 혼인에 대한 재혼의 비율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85	264	342	21,558	29,025	8.1	10.4	5.7	7.7
1990	336	371	28,153	33,348	8.5	9.4	7.1	8.4
1995	464	488	39,843	39,838	10.4	10.9	10.0	10.0
2000	678	638	48,324	43,617	16.9	15.9	14.5	13.1
2001	677	624	52,543	46,943	18.3	16.8	16.4	14.7
2002	759	704	52,595	47,225	21.2	19.7	17.2	15.4
2003	706	647	55,791	50,237	20.9	19.1	18.3	16.5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3) 가정폭력 상담지원 정도

□ 지표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수를 통해 그 지원 정도를 측정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가정 내 폭력은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기본문제임.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전문화, 관련기관간의 연계체계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등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실태

연도별 시설 현황에 대한 통계 부족으로 연도별 서비스 시설 현황을 비교할 수 없으나 현재 상담소 4개, 보호시설 1개로 전국 평균 11.5개소, 2.62개소 보다 낮은 실정임

<표 16>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상담소		보호시설	
	전국	제주	전국	제주
2004	185(11.5)	4	42(2.62)	1

주: ()는 전국평균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4) 사회화 및 교육기회

(1) 자녀의 성역할에 대한 교육

□ 지표의 정의

사회의 문화가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대를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차별적 법·제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남아 있어 남녀 평등적 법·제도 정착 및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여성의 사회화는 기성세대의 성 고정관념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는데, 가정 내에서 부모들이 일찍부터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를 심어주기 때문임. 가정 내에서 부모가 평등한 남녀 동반자적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성평등 모델이 되어야함. 가정 내 성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통해 성역할에 대한 교육의 실태를 추측할 수 있음

□ 실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한 조사에서 2002년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전체 44.0%가 가정생활에서 남녀의 성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여성 49.1%, 남성 38.4%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표 17> 성차별에 대한 인식

(단위: %)

연도	성	많이 있다		약간 있다		그저 그렇다		거의 없다		전혀없다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1998	전체	10.1	7.0	31.6	30.5	27.2	25.8	21.8	24.2	9.3	12.4
	여자	11.4	8.1	33.9	32.1	25.3	25.1	20.4	22.9	9.0	11.8
	남자	8.6	5.9	29.1	28.9	29.3	26.6	23.4	25.6	9.7	13.0
2002	전체	10.2	7.6	33.8	30.4	25.2	26.8	18.9	22.8	12	12.3
	여자	12.0	9.1	37.1	31.8	24.2	25.7	15.8	21.5	11.0	11.9
	남자	8.2	6.1	30.2	28.9	26.2	28.0	22.3	24.2	13.1	12.7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2) 자녀의 성별 교육기대수준

□ 지표의 정의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교육 수준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양성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성중심적 사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성별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있어 특징적인 사유는 부모의 사고방식 때문임. 자녀의

성별 교육기대수준을 통해 가정 내 여성의 희생과 불평등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음

□ 실태

가정 내에서 자녀의 교육의 기대수준이나 교육의 목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성별 교육 미충족 이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교육기회의 미충족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여성의 경우 71.7%, 남성의 경우 60.6%로 여성이 남정보다 교육기회의 미충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 중 양성이 모두 경제적 형편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남성은 시험의 실패가 원인인 반면, 여성은 부모의 사고방식 때문으로 나타남

<표 18> 전국 성별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

(단위: %)

연도	충족자 비율	미충족자 비율	미충족 이유							
			소계	경제적 형편	학교가 멀어서	시험 실패	부모의 사고방식	집안됨	질병 신체적 장애	기타
2000 전체 여자	24.5	75.5	100.0	47.9	0.9	9.4	10.4	4.4	0.8	1.6
	20.9	79.1	100.0	46.4	1.1	7.9	17.7	3.8	0.7	1.4
2004 전체 여자 남자	31.5	68.5	100.0	66.5	1.4	12.6	11.6	5.6	1.1	1.1
	27.4	72.6	100.0	62.7	1.6	10.1	18.6	5.0	0.9	1.0
	36.0	64.0	100.0	71.3	1.1	15.8	2.9	6.3	1.3	1.3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표 19> 제주도 성별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

(단위: %)

연도	충족자 비율	미충족자 비율	미충족 이유							
			소계	경제적 형편	학교가 멀어서	시험 실패	부모의 사고방식	집안됨	질병 신체적 장애	기타
2000 전체 여자 남자	28.6	71.4	100.0	63.0	1.1	10.8	13.0	7.4	1.3	3.3
	23.5	76.5	100.0	59.0	1.6	8.1	20.4	7.2	-	3.2
	34.2	65.8	100.0	68.1	0.6	14.4	3.6	7.7	2.3	3.3
2004 전체 여자 남자	33.5	66.5	100.0	63.2	1.9	10.5	12.9	6.7	2.1	2.8
	28.3	71.7	100.0	59.4	1.7	7.6	20.4	6.8	1.7	2.4
	39.4	60.6	100.0	68.3	2.2	14.3	3.0	6.4	2.6	3.2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3) 성별 자녀교육 목적

□ 지표의 정의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직업에 거는 목적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이는 부모들의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성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에서의 성평등에 입각한 양성적 사회화가 우선되어야함

□ 실태

<표 19> 성별 교육기회의 미충족 이유를 통해 자녀의 교육 목적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추측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자녀의 성별 교육기대수준’ 지표를 참고하여 유추할 수 있음

5) 소득 및 재산

(1) 성별 부동산, 자동차 소유비율

□ 지표의 정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가정 내 재산의 공동 명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가정 내 양성평등의 핵심적 요인은 동등한 의사결정권임. 이를 위해 여성의 독자적 재산권 확보는 중요하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연관됨. 여성의 가정내 의사결정권 행사의 권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여성의 주체성 확보로 파악될 수 있음. 특히, 가부장제적 전통으로 재산의 대부분이 남성의 명의로 등기됨에 따라 여성은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음

□ 실태

성별 부동산, 자동차 소유비율에 대한 통계가 양산되지 않고 있음

<표 20> 자동차 보유 가구수(2000)

(단위: 가구)

총계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트럭등 기타		
	미 보유	1대 보유	2대 보유	3대 이상 보유	미 보유	1대 보유	2대 보유	3대 이상 보유	미보유	1대 보유	2대 이상 보유	미보유	1대	2대 이상 보유
157,532	53,885	80,206	20,322	3,119	24,396	69,713	9,180	358	90540	12468	639	77,849	23,994	1,804

자료: 통계청(200), 시도/가구주의 산업(대분류)/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일반가구)

□ 제언

자동차의 소유비율 통계는 생산되고 있으나 가구주를 중심으로 집계되어 성별에 따른 소유여부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어야 함

(2) 성별 저축계좌, 신용카드 소유비율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 중 배우자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통해 여성의 저축 계좌나 신용카드 소유비율도 늘어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표 21>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04. 2/4		2005. 1/4			2005. 2/4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소득	2,730.7	6.4	2,937.5	100.0	5.8	2,851.7	100.0	4.4
실질소득	2,391.1	2.9	2,510.7	-	2.5	2,424.9	-	1.4
경상소득	2,616.9	7.0	2,710.3	92.3	4.4	2,712.2	95.1	3.6
근로소득	1,712.3	6.5	1,785.8	60.8	3.6	1,781.0	62.5	4.0
가구주	1,223.0	5.8	1,287.6	43.8	2.7	1,269.6	44.5	3.8
배우자	254.9	6.8	253.5	8.6	4.2	265.3	9.3	4.0
기타가구원	234.3	10.0	244.7	8.3	7.9	246.1	8.6	5.1
사업소득	655.6	4.8	644.5	21.9	1.6	652.1	22.9	-0.5
재산소득	60.9	-2.3	62.7	2.1	11.1	63.7	2.2	4.7
이전소득	188.1	25.0	217.3	7.4	19.8	215.4	7.6	14.5
비경상소득	113.8	-5.7	227.2	7.7	25.5	139.5	4.9	22.6

주: 실질소득 = (소득)/(2000년=100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출처: 통계청, 《2005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2005. 8.

(3) 성별 재산세 납부비율

(4) 성별 상속세 납부비율

□ 제언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통계는 성별에 따라 생산되지 않으므로 이혼 등 가정해체 등에 있어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함. 가정 내 재산에 대한 부부공동 등록 등 다양한 측면의 통계생산이 요구됨

6) 건강 및 여가활동

(1) 성별 건강검진율

□ 지표의 정의

건강검진자에 대한 성별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건강권은 하나의 인권으로 평가됨으로 성별 건강검진율을 통해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음. 특히 임신과 출산, 노령화 등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건강 보호 등 여성의 입장과 특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건강증진사업 필요

□ 실태

사회통계에서 나타난 건강관리 주된 방법에서 볼 때 국민이 전반적으로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기적 검진을 받는 비율은 2.0%로 매우 낮은 실정임. 또한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비해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2> 건강관리 주된 방법(2003)

(단위: %)

15세 이상 인구	전국	제주	남	여
건강관리를 한다	70.4	71.7	75.2	68.6
운동을 한다	26.9	27.9	31.6	24.4
식사를 조절한다	12.7	11.4	9.4	13.3
보약 또는 영양제를 먹는다	4.8	3.3	2.7	3.9
담배, 술 등을 절제한다	4.1	4.0	7.1	1.2
목욕, 사우나 찜질을 자주 한다	4.2	5.2	4.6	5.7
충분한 휴식, 수면을 취한다	15.4	17.0	16.1	17.7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는다	2.0	2.8	3.5	2.1
기타 건강관리를 한다	0.2	0.1	-	0.3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9.6	28.3	24.8	31.4
총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통계》, 2003.

□ 제언

건강검진자에 대한 성별 통계가 실질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음. 지역실정을 위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되어야 함

(2) 성별 주당평균 여가시간

□ 지표의 정의

성별 주당 평균 여가활용 시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분리에도 불구하고, 여가의 활용은 오히려 남성의 영역이라 인식됨. 여가시간은 노동 시간과 맞물리는 것으로 여가 시간의 격차는 가정 내에서 누구에 의해서 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가를 짐작할 수 있음

□ 실태

전체적으로 여성은 4:44시간, 남성은 5:35로 남성의 여가시간이 더 길며 평일보다 오히려 주말에 더욱 격차가 큼. 여가 유형별로 보면 남녀 모두 대중매체를 이용하거나 교제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여성은 종교 활동이나 물품구입과 관련된 활동을, 남성은 일반인의 학습이나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

<표 23> 성별 여가시간(1999)

(단위: 시간: 분)

구분		요일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계	전국		4:45	5:04		4:16	4:34		4:55	5:31		5:48	7:08
	제주	5:09	4:44	5:35	4:43	4:20	5:09	5:43	5:11	6:15	6:42	6:15	7:10
교제활동		1:05	1:04	1:06	0:57	1:00	0:54	1:09	1:04	1:15	1:40	1:25	1:57
대중매체 이용		2:38	2:29	2:47	2:23	2:11	2:36	3:07	3:01	3:13	3:22	3:26	3:19
신문		0:07	0:03	0:11	0:07	0:03	0:11	0:07	0:04	0:10	0:07	0:02	0:11
텔레비전		2:20	2:16	2:24	2:05	1:58	2:13	2:48	2:45	2:51	3:03	3:14	2:52
일반인의 학습		0:09	0:07	0:12	0:10	0:08	0:11	0:08	0:06	0:11	0:08	0:02	0:15
종교활동		0:08	0:12	0:04	0:07	0:10	0:04	0:06	0:10	0:02	0:16	0:24	0:08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0:01	0:01	0:01	0:01	0:01	0:01	0:04	0:03	0:05	0:01	0:01	0:01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0:19	0:12	0:27	0:19	0:11	0:27	0:19	0:12	0:26	0:22	0:13	0:32
취미 및 그 외 여가 활동		0:46	0:35	0:57	0:45	0:35	0:55	0:47	0:32	1:03	0:48	0:41	0:56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2	0:02	0:01	0:01	0:02	0:01	0:02	0:03	0:01	0:02	0:03	0:01
기타 여가 관련 활동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1	0:01	0:01

주: 10세 이상 인구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3) 성별 여가 만족도

□ 지표의 정의

성별로 여가활용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가는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성별 여가시간은 여가에 대한 양적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여가 만족도는 여가에 대한 질적 격차를 가늠할 수 있음

□ 실태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비율보다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 이유는 2004년 현재 여성 44.2%, 남성 48.95%로 경제적 부담이 양성 모두에게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시간부족, 여가시설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하다는 순으로 함께 나타남

<표 24> 여가활동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단위: %)

연도/연령	만족함	만족 하지않음	불만족이유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교통불편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건강이나 체력부족	기타
2000										
전체	36.5	63.5	46.2	28.1	1.1	5.6	3.2	8.7	6.6	0.6
여자	37.7	62.3	46.9	26.4	0.9	4.7	4.2	8.7	7.7	0.6
남자	35.3	64.7	45.6	29.9	1.2	6.5	2.1	8.7	5.5	0.5
2004										
전체	40.2	59.8	46.4	25.1	1.8	7.6	3.6	6.0	6.1	3.4
여자	37.5	62.5	44.2	24.9	1.9	7.8	4.3	6.3	6.3	3.5
남자	43.1	56.9	48.9	25.3	1.7	7.4	2.8	5.7	5.7	3.3
전국										
2000										
전체	31.6	68.4	52.5	24.5	5.3	3.2	1.9	5.6	6.5	0.5
여자	30.9	69.1	53.9	22.0	4.4	3.0	2.1	6.1	7.8	0.7
남자	32.2	67.8	50.9	27.1	6.3	3.4	1.8	5.0	5.1	0.3
2004										
전체	27.3	72.7	52.4	25.0	3.8	3.7	2.0	4.7	6.1	2.3
여자	26.1	73.9	53.0	23.0	3.5	3.7	2.2	4.6	7.6	2.4
남자	28.6	71.4	51.9	27.2	4.1	3.8	1.7	4.7	4.4	2.2

주: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2. 정치부문

1) 대표성

(1) 여성단체장의 임용률

지표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이 임용된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단체장의 임용률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지역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부진한 실정이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는 남녀의
동등한 참여 및 민주정치발전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시급함

실태

여성단체장은 입후보가 1명도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의한 여성단체장 할당제 등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표 25>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2002)

(단위: 명)

지역	광역단체장				기초자체단체장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제주	3	0	1	0	6	0	4	0
전국	55	0	16	0	750	8	232	2

주: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2) 행정서비스 현장의 양성평등 명시여부

지표의 정의

행정서비스 현장에 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양성평등 명시 여부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행정서비스 현장에 양성평등 조항의 명시는 여성의 지위보장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각종 여성관련 정책에 이에 대한 명시는 진행되고 있음. 각 행정서비스 조항에 양성평등의 명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정책입안자의 성 인지성을 제고시키는 다양한 훈련이 필요함

실태

지역 여성특위를 비롯하여 도정의 방향에 양성평등에 대한 조항이 명기되어 있음

(3) 여성의원 비율

지표의 정의

전체 지방 의원수에 대한 여성의원의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남녀평등 권한 척도로 사용되며 여성의원의 비율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함. 여성들의 부진한 정치참여는 여성에 대한 부분이 소외되

어 불균형한 정책이 양산될 수 있음.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정치인력 육성 및 유권자 의식개선 교육 등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실태

17대 국회의원은 입후보 및 당선자가 없으며, 시·도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당선자가 1995년과 1998년에 각 1명, 2002년에 2명이 당선되었음. 시·군구의원은 전무한 상태임

<표 26> 국회의원 입후보 및 당선자수

(단위: 명)

연도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자	전체	여자
17대 국회의원	2002	제주	11	0	3	0
		전국	1,175	66	243	1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표 27>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단위: 명)

연도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시·도의원회	1991		49	0	17	0
	1995		45(4)	0(1)	17(3)	0(1)
	1998		38(4)	1(2)	14(3)	0(1)
	2002	제주	39(7)	1(4)	16(3)	0(2)
		전국	1,531	48	609	14
시·군의원회	1991		94	1	51	0
	1995		124	1	51	0
	1998		87	0	41	0
	2002	제주	85	0	38	0
		전국	8,373	222	3,485	77

주: ()안은 비례대표 도의원임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참여도

(1) 여성유권자의 투표비율

지표의 정의

전체 투표율에 대한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은 여성의 정치 참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강한 상황에서 여성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사업이 필요. 교육을 통한 생활 속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여성들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 및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이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실태

현재 성별 투표율은 발표되고 있지 않음

3) 권력배분

(1) 위원회의 양성위원 비율

지표의 정의

제주도내 각종 위원회의 전체 위원수에 대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정부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목표율을 정하는 등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옴.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서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양성평등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부분의 여성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실태

2003년 현재 여성위원회수는 총 251개이며, 이 가운데 당연직 여성위원수는 243명이며 위촉직 여성위원은 783명임. 도·시군별로 보면, 위촉직인 경우 북제주군 34.2%, 제주시 33.8%, 남제주군 31.5%, 서귀포시 28.1%, 제주도가 26.4% 순으로 나타남. 당

연직인 경우는 제주시가 25.9%, 북제주군이 6.3%, 남제주군 5.5%, 제주도가 4.4%, 서귀포시가 1.0%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도와 비교하면, 당연직, 위촉직 모두에서 여성위원수가 증가함

<표 28> 전국 여성위원 참여현황

(단위: 명, %)

기관명	위원회수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자	비율	전체	여자	비율
2002	995	4,699	156	3.3	12,543	3,948	31.5
2003	993	4,220	166	3.9	11,590	3,858	33.3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표 29> 제주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2005. 6)

(단위: 명, %)

구분	위원회수	전체위원수			당연직위원수			위촉직위원수		
		합계	여성위원	비율	합계	여성위원	비율	합계	여성위원	비율
제주시	51	773	205	27	216	4	2	557	201	36

자료: 제주시 홈페이지 성별통계, 2005.

<표 30> 제주도 여성위원 참여현황

(단위: 명, %)

기관명	위원회수	당연직			위촉직		
		전체	여자	%	전체	여자	%
2002							
제주도	71	319	14	44	881	219	24.9
제주시	46	766	175	22.9	567	174	30.7
서귀포시	37	141	1	0.7	366	117	32.0
북제주군	40	207	11	5.3	386	124	32.1
남제주군	37	226	9	4.0	270	83	30.7
2003							
제주도	73	317	14	4.4	856	226	26.4
제주시	48	780	202	25.9	580	196	33.8
서귀포시	47	209	2	1.0	473	133	28.1
북제주군	44	207	13	6.3	412	141	34.2
남제주군	39	238	12	5.0	276	87	31.5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주민자치위원회 양성위원 비율

□ 지표의 정의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기관임.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심을 가짐. 주민자치 위원회 내 양성비율은 지역 내 민주화와 양성평등의 실현 정도를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어느 한 성이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성비의 균등한 실현이 요구됨

□ 실태

2002년 현재 제주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별 참여를 살펴보면, 통장에 있어 여성은 16.2%, 남성은 83.8%이고, 각종 자생단체에 있어 여성참여는 30.9%, 남성은 69.1%임

<표 31> 통장 · 주민자치위원 여성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통장			각종자생단체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제주시	506 (100.0)	424 (83.8)	82 (16.2)	985 (100.0)	681 (69.1)	304 (30.9)

주: 제주시 이외, 남군, 북군, 서귀포시의 경우 자료가 미공개 되어 있음
 자료: 제주시, 《통계로 보는 제주시 여성의 모습》, 2003. 6. 30.

(3) 학교운영위원회의 양성위원 비율

□ 지표의 정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양성의 구성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정책에 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임. 자녀교육이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학부모회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남

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이는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권에 있어 여전히 여성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교육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 하나의 성에 대한 배제는 교육이념에 배치 됨

□ 실태

위원회의 성별 구성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

3. 행정부문

1) 조직 및 인사

(1) 양성평등정책 전담조직의 운영

□ 지표의 정의

양성평등과 연관성 높은 업무들을 포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담부서의 운영 실태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행정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 제도개선, 시책발굴 등에 앞장 서야함. 그러므로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양성평등조직의 운영은 중요하며, 양성평등 정책이 주변화 되지 않고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양성평등관련 업무를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위상을 높여야 함

□ 실태

제주도와 시군은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제주도는 보건복지여성국내 여성정책과, 여성특별위원회,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자치행정국내 양성평등지원과를 설치하여 양성평등담당과 여성복지 담당으로 세분화 하여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음.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사회복지여성과에서 여성정책 담당을 전담하고 있음

(2) 인사관련위원회 여성공무원비율

□ 지표의 정의

인사관련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저조한 한편 인사·기획·감사 등 주요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낮은 실정임. 특히, 인사관련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은 것이 주요 원인임

□ 실태

인사관련 부서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전체 26명 중 5명(19.2%)로 매우 낮음. 그러나 인사관련 지방공무원의 여성비율이 전국 평균(17.4%)을 웃돌고 있음

<표 32>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 현황(2003)

(단위: 명, %)

시도			합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전국	국가 공무원	전체	4,870	1,278	1,077	1,164	1,351
		여자 비율	524 10.8	133 10.4	160 14.9	141 12.1	90 6.7
	지방 공무원	전체	5,778	1,487	1,187	1,417	1,687
		여자 비율	840 14.5	251 16.9	176 14.8	246 17.4	167 9.9
제주		전체	101	24	28	26	23
		여자 비율	21 20.8	7 29.2	6 21.4	5 19.2	3 13.0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 제언

개방형 직위에 있어 여성우대 등 제도적인 장치와 각 부문에 대한 훈련 등 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3) 여성공무원 채용비율

□ 지표의 정의

전체 채용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공직분야에서의 남녀차별의 실태를 보면 대개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채용, 보직, 승진, 교육훈련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음. 채용에 있어서 불평등은 공직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함.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의 추진을 통해 공직 내 성비균형과 행정서비스 제공의 양성평등을 제고해야 함. 최근 하위직급의

경우 여성의 채용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실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총 4,285명 중 여성공무원은 949명으로 22.1%의 분포를 보임. 전체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분포는 낮고, 연도별로 보면 2001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2년에 다시 감소하여 현재까지 변동 없음

<표 33> 공무원 여성수 및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체	여성	여성비율
1995		4,672	916	19.7
1998		4,601	991	21.5
1999		4,460	967	21.7
2000		3,531	947	26.8
2001		3,441	930	27.0
2002		4,271	942	22.1
2003	제주	4,285	949	22.1
	전국	220,803	58,731	26.6

주: 1)공무원수는 제주도청, 제주시청, 북제주군청, 남제주군청 수를 합제한 것

2)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전문직/계약직을 합한 것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4)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 지표의 정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공직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매우 열악함. 이는 여성의 공직사회에서 대표성과 의사결정권의 약화를 가져옴. 승진은 여성이 관리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므로 여성 공무원의 상위직 비율을 늘리기 위한 승진할당제 등의 적극적 인사정책 필요

□ 실태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자료가 부재한 실정

(5) 여성인력의 직급별 비율의 유지율

□ 지표의 정의

여성인력이 승진 시 직급별로 이전비율이 유지되는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인력의 직급별 승진비율의 유지는 여성에 대한 인사정책이 선심성이나 일회성이 아니라, 양성평등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행정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직급별 여성비율의 안정적 유지는 여성정책의 일관성 있는 실행에 영향을 미침

□ 실태

직급별 여성공무원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각 직급에서 여성비율의 유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각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6급 이상에 한하여 살펴보면, 2003년 현재 4급에서 1급까지 여성공무원의 분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5급은 현재 3.4%로 연도별로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6급은 2001년 13.0%였던 것이 2002년 10.5%로 감소하고, 현재 11.1%로 다시 조금 상승함

<표 34> 직급 및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수

(단위: 명, %)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사	연구사/ 지도사
1995												
전체	2,683	1	0	9	51	293	664	711	512	259	24	179
여자	499	0	0	0	1	5	45	125	164	130	1	28
비율	18.6	-	-	-	2.0	1.7	5.4	17.6	32.0	50.2	4.2	15.6
2000												
전체	2,183	0	2	3	49	219	546	572	427	180	23	162
여자	588	0	0	0	0	6	67	162	253	67	2	31
비율	26.9	-	-	-	-	2.7	12.2	28.3	59.2	37.2	8.6	19.1
2001												
전체	2,122	0	2	5	53	213	520	564	419	165	24	157
여자	588	0	0	0	0	6	68	162	247	73	2	30
비율	27.2	-	-	-	-	2.8	13.0	28.7	58.9	44.2	8.3	19.1
2002												
전체	2,591	0	1	6	62	269	640	818	463	139	25	168
여자	605	0	0	0	0	8	67	212	210	76	2	30
비율	23.4	-	-	-	-	3.0	10.5	25.9	45.4	54.7	8.0	17.9
2003												
전체	2,597	1	1	6	58	262	628	859	474	118	27	163
여자	612	0	0	0	0	9	70	234	196	71	2	30
비율	23.6	-	-	-	-	3.4	11.1	27.2	41.4	60.2	7.4	18.4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표 35> 직급별 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제주												
전체	3,865	2	2	9	77	311	876	942	497	126		1,023
여자	966	0	0	1	1	16	156	252	212	71		257
비율	25.0	0.0	0.0	11.1	1.3	5.1	17.8	26.8	42.7	56.3		25.1
전국												
전체	220,803	37	74	333	2,472	14,140	45,480	66,918	32,420	12,488		46,671
여자	58,731	1	0	18	92	818	6,357	19,184	14,753	6850		10,771
비율	26.6	2.7	0.0	5.4	3.7	5.8	14.0	28.7	45.5	54.9		23.1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6)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

□ 지표의 정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정부는 최근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06년까지 10%로 확대하고자 하는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정부(안)」을 추진하고 있음.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공직에서의 여성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여성의 공무원 상위직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확대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과 의지 있는 실행이 필요함

□ 실태

2003년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전체 411명 중 여성은 18명인 여성비율이 4.5%로 나타나 전국평균 5.4보다 낮게 나타남

<표 36> 5급 이상 성별 공무원(2003)

(단위: 명)

구분	전체	여자	남자	여성비율
제주	401	18	383	4.5
전국	17,056	929	16,127	5.4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표 37> 5급 이상 제주시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공무원수	일반직							
		1~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계	659	-	1	8	51	165	267	128	39
남자	438	-	1	7	49	136			22
여자	221	-	-	1	2	29			17
비율(%)	33.5	-	0.0	12.5	3.9	17.6	39.3	52.3	43.6

자료: 제주시 홈페이지, 2005

(7) 해외교육훈련 여성공무원 참여비율

지표의 정의

해외교육훈련 파견자중 여성공무원의 참여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공직사회 내에서 주요 보직분야에 여성 배치는 공공부분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에 있어서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자체 내 여성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국제적인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실태

교육관련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제언

교육관련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이 필요함

2) 예산 및 통계

(1) 성인지적 예산도입

지표의 정의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지출됨으로써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예산편성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2002년 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정부부처의 정책기획과 집행에 있어서 성인지성을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성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함. 그 동안 여성관련 의제들은 정책적 반영과 법제화에만 노력을 기울여옴. 정책도구와 역량의 구비 없이는 명목상의 양성평등만이 존재하므로 목표와 실제 집행결과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 성인지적 예산의 도입은 매우 중요함

□ 실태

현재 지역에서 성인지적 예산의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제언

성인지적 예산의 도입이 필요함

(2) 여성정책관련 예산비율

□ 지표의 정의

전체 예산 중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예산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중립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불평등이나 빈곤의 문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 우리나라 여성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 미만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보육사업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 여성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평등사회의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그리고 여성복지의 증진이라는 여성정책의 기본적 목표와 부합된 실제 집행을 위한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임

□ 실태

제주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여성정책, 여성복지, 유아복지,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 유아복지 부분으로 여성복지예산은 여전히 낮은 실정임. 아울러 사회분야의 예산으로 여성분야의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표 38> 제주도 여성전담부서 총 예산(2006)

(단위: 천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총계	63,719,389	100	43,422,336	100	42,886,203	100
여성복지	32,880,191	52	4,653,400	11	2,595,887	6
유아복지	29,933,680	47	37,474,133	86	39,844,357	93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	905,518	1	1,021,803	2	445,959	1

주: 추경예산은 반영하지 않음 1차 예산공표자료 활용 재분석
 자료: 제주도홈페이지 사업예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 제언

제주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사업초기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이 편중되는 실정임. 따라서 초기 예산 배정에 있어 여성전담부서의 예산 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성별 분리통계의 생산

□ 지표의 정의

통계의 생산에 있어서 성별 분리항목을 기준으로 두는 것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대부분의 정책들은 표면적으로 성 중립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디자인되고 있으나 성 인지적 시각의 결여로 여성은 여전히 비주류화 되고 있는 실정임. 성별 분리통계 자료의 부재로 각 지자체의 여성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자체가 어려움. 양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성별 분리통계의 생산이 매우 중요함

□ 실태

제주도의 여성백서는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도청 홈페이지에, <제주여성>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1998년부터 2년마다 《제주여성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3) 자치행정

(1) 양성관련 자치법령 제정 및 지침 개선 정도

□ 지표의 정의

양성관련 자치법령의 제정 실태와 각종 지침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한 정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거시적 환경이 마련되기도 하지만 가부장적 문화속의 법은 평등을 전제하면서도 여전히 차별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음. 따라서 법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 자체의 성차별적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고쳐나가는 노력들을 하여야함

□ 실태

제주도의 여성관련 조례는 5개가 있음. 그러나 여성정책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함

<표 39> 여성관련 조례

조례명	제정일
제주도 만덕봉사상 조례	1990. 4. 9
제주도 공관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1996. 10. 1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997. 12. 3
제주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1999. 1. 31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설치조례	2000. 1. 10

4. 경제부문

1) 취업여건

(1) 남녀 임금격차

□ 지표의 정의

전 산업 월평균 임금에 있어서 남녀의 격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하였지만 고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은 크며 남녀 임금격차는 취업여성들의 불평등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임. 이는 여성의 일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에 기인함.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과 더불어

여성의 빈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만큼 여성근로자가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실태

2003년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을 보면 2002년에 비해 임금이 평균 약 13만원정도 상승했으나 남성과의 임금 차이는 오히려 증가하여, 2003년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총액 임금은 남성임금의 62.8% 수준으로 나타남

<표 40> 전국 성별 월평균 임금총액 및 여성 임금비

(단위: 원, %)

연도	1990	1995	2000	2002	2003
여자	388,000	790,000	1167,000	1331,000	1446,000
남자	727,000	1360,000	1855,000	2119,000	2303,000
남녀임금비	53.4	58.1	62.9	62.8	62.8

주: 1) 월평균임금=월급여액+(연간특별급여액*1/12)
 2) 1990년, 1995년 통계는 10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00-2003년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표41> 제주도 성별 월평균 임금총액 및 여성 임금비

(단위: 원, %)

연도	1990	1995	2000	2002	2003
여자	381,744	813,172	1,068,353	1,202,336	1,247,010
남자	696,017	1,317,053	1,657,217	1,847,871	1,938,703
남녀임금비	54.8	61.7	64.5	65.1	64.3

주: 1) 월평균임금=월급여액+(연간특별급여액*1/12)
 2) 1990년, 1995년 통계는 10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3) 2000-2003년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비정규직 여성비율

□ 지표의 정의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노력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는 증가추세임.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사내 복지 서비스 등 권익보호가 부족한 실정임. 여성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근로자로 모성보호 및 휴가휴직제도의 적용 등 현실적 지원 필요

□ 실태

성별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를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임시, 상용, 일용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남성은 상용, 임시, 일용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03년 현재 여성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직이 35천명, 상용20천명, 일용 19천명이며, 남성은 상용 44천명, 임시 24천명, 일용 18천명으로 나타남

<표 42> 전국 성별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2003)

(단위: 천명)

연도	전체	자영업주	무급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전체	22,139	6,043	1,694	7,269	5,004	2,130
여자	9,108	1,618	1,519	2,109	2,826	1,036
남자	13,031	4,424	175	5,160	2,178	1,094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표 43> 제주도 성별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연도	전체	자영업주	무급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2001						
전체	269	85	33	59	61	33
여자	126	27	27	18	37	17
남자	143	58	4	42	23	16
2003						
전체	281	90	30	64	59	37
여자	129	29	26	20	35	19
남자	151	61	4	44	24	18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3) 여성 취업률

□ 지표의 정의

조사대상 기간 중 소득, 봉급,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 이득이나 수입 없이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는 가졌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여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로서 여성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곧 여성의 사회적 지위상승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들의 취업 열망에 비하여 경제활동 참여는 제한적이며, 산업별로는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판매직에 치우쳐 여성 지위의 취약성을 짐작할 수 있음

□ 실태

여성 취업자수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3년 현재 129천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직업별로 살펴보면, 입법자, 고위직 및 관리자의 경우 2001년 여성은 0%에서 2003년 현재 0.8%로 전국 평균(0.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에서 계속적으로 가장 높은 취업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추세임. 한편 산업별 취업분포에서 여성은 3차 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4> 여성 취업자수

(단위: 천명)

연도	취업자		실업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95	114	133	1	1	
2000	123	137	2	4	
2001	125	138	2	4	
2002	130	141	2	4	
2003	제주	129	151	2	3
	전국	9,108	13,031	289	487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표 45>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천명, %)

연도	계	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2001 전체	269 (100.0)	4 (1.5)	28 (10.4)	31 (11.5)	62 (23.0)	65 (24.2)	43 (16.0)	36 (13.4)
여자	125 (100.0)	0 (0.0)	13 (10.4)	16 (12.8)	41 (32.8)	33 (26.4)	2 (1.6)	20 (16.0)
2003 제주	전체	281 (100.0)	4 (1.4)	33 (11.7)	31 (11.0)	72 (25.6)	67 (23.8)	45 (16.0)
	여자	129 (100.0)	1 (0.8)	16 (12.4)	16 (12.4)	49 (38.0)	32 (24.8)	4 (3.1)
전국	전체	22,139 (100.0)	597 (2.7)	3,842 (17.4)	3,172 (14.3)	5,570 (25.2)	1,834 (8.3)	4,794 (21.7)
	여자	9,108 (100.0)	35 (0.4)	1,506 (16.5)	1,496 (16.4)	3,387 (37.2)	828 (9.1)	740 (8.1)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2.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표 46> 산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연도, 성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1995 전체 여자	256(100.0)	81(31.6)	13(5.1)	162(63.3)	
	116(45.3)	42(16.4)	4(1.6)	70(27.3)	
2000 전체 여자	232	72	8	152	
	103	37	2	64	
2003 제주	전체	281(100.0)	72(25.6)	12(4.3)	196(69.8)
	여자	129(100.0)	37(28.7)	4(3.1)	89(69.0)
전국	전체	22,139(100.0)	1,950(8.8)	4,222(19.1)	15,967(72.1)
	여자	664(100.0)	120(18.1)	53(8.0)	492(74.1)

자료: 1) 제주여성교육문화원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1998,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2) 취업 안정성

(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율

□ 지표의 정의

고용에 있어서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의 개선 정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일반적으로 여성취업은 채용에서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제한 당하거나 폄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채용기준에 있어서 남성은 성적, 자격증, 재능, 발전가능성을 주로 꼽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용모, 인상, 성격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동일계열 졸업자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들에 비하여 취업률이 낮음. 취업가능성이 높고 유망한 직종에서 남성중심적인 노동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면 여성인력은 인력수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남녀 고용차별 관행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임

□ 실태

최근 법 규제 및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고용에 있어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2) 여성기업인 정책지원 비율

□ 지표의 정의

기업인에 대한 정책사업 중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교육과 서비스부문의 성장은 여성기업의 증가를 활성화시켜왔으나 대부분의 여성소유 사업체들은 신생업체이며 불안정함.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여성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하게 될 경우 구체적인 제약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신용대출, 훈련, 기술, 정보 등으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남성보다 신청이 복잡하게 되어 있음. 경제활동에서 양성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문화의 조성 및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실태

2003년 조사에 있어 여성기업체 비율이 4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3년 여성정책 가운데 ‘여성경제인 창업강좌 지원’을 위해 총액 16,105,257천원 중

8,000천원이 책정됨

<표 47> 여성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비율

(단위: 개소, %)

	전체사업체수 (2000년)(A1)	전체사업체수 (2001년)(A2)	여성기업체수 (2000년)(B1)	여성기업체수 (2001년)(B2)	여성기업비율(%) B1/A1	여성기업비율(%) B2/A2
제 주	38,847	36,252	16,254	16,660	41.8	46.0
전 체	3,013,417	2,814,561	1,021,515	1,036,981	33.9	36.8

주: 통계청 모집단 중 지사, 공장,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제외한 순수 영리 사업체(Enterprise)임

출처: 통계청, 《여성기업실태조사》, 2003.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1.

(3) 성별 평균 근속년수

지표의 정의

성별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평균 경력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취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결혼, 임신, 출산을 계기로 경력단절이 발생함. 이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승진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근속년수에 있어서 매우 불리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결혼, 출산, 자녀양육에 관계없이 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출산, 육아지원제도의 정립이 필요함

실태

여성의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성별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4) 결혼, 임신, 출산 전후의 퇴직자 비율

지표의 정의

직장 내 퇴직여성 중 결혼이나 임신 그리고 출산을 계기로 퇴직한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은 결혼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의 양립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혼, 임신, 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취업률이 낮아짐. 이러한 특성은 여성들에게 양

육과 관련된 책임이 전적으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임. 이는 여성들의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남녀가 함께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이 요구됨

□ 실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감을 통해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34세의 취업률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전후의 퇴직자비율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현재 25-29세 58.6%, 30-34세 55.7%, 40-44세 67.2%로 결혼, 임신, 출산 시기로 추정되는 30-34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자녀양육기를 보낸 40세 이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음

<표 48>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연령 연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5	57.6	14.3	65.2	63.6	60.0	70.0	73.3	76.9	40.5		
1998	55.2	7.6	62.9	57.9	50.4	70.6	76.9	75.0	46.1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이상	
2000	제주	52.3	6.3	52.9	58.6	55.7	65.4	67.2	66.3	66.1	64.2	42.5
	전국	48.3	12.5	60.8	55.9	48.5	59.1	63.4	64.6	55.2	50.8	29.8

주: 2000년부터 40세 이상 연령 세분화함에 따라 기술내용 변경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3) 의사결정

(1) 관리직의 여성비율

□ 지표의 정의

기업의 전체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기업의 여성인력 대부분은 낮은 지위와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수직 이동을 억압하는 구조적 요인, 즉 남성 편향적인 고용규칙, 질서 그리고 수

행평가에 기인함. 성별에 따른 인력관리가 아닌 능력 중심의 인력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때 기업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에 대한 일정기간 채용 및 승진상의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등 여성친화적인 경영을 도입하도록 적극 권고·유도하고 남녀평등 고용환경 조성, 직장과 가정을 양립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실태

현재 지역 기업에 대한 여성임원 통계는 생산되고 있지 않음

(2) 창업자 중 여성창업자 비율

□ 지표의 정의

연도별 전체 창업자중 여성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창업은 일부 업종에 집중되고 규모 또한 영세한 실정임. 음식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와 같이 3차 산업에 여성 창업이 집중되어 있음. 여성기업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 환경, 즉 가부장적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며 여성창업이 다양화·활성화되도록 여성비교우위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 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지원이 요구됨

□ 실태

<산업 및 사업체 남녀 대표자별 사업체 분포>로 연도별 총 창업의 수 및 여성 창업인의 비율의 추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사업체의 대표를 창업주로 볼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여성 창업자의 비중 및 창업형태의 파악이 가능함. 여성창업의 유형이 한곳에 몰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닌 부업형 창업 비중이 높기 때문임. 아울러 유사 유형의 창업으로 과당 경쟁 및 소비 심리 위축 등 창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함.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험과 아이디어 중심의 창업, 공동창업, 재창업, 복합형창업 등이 늘고 있는 추세임. 여성대표는 2003년 현재 42.8%로 여전히 남성이 비중이 높지만, 그 간의 양적 성장을 짐작할 수 있음. 산업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 67.9%, 교육 서비스업 60.7%, 도매 및 소매업 51.3% 등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창업률을 보임

<표 49> 산업 및 사업체 남녀 대표자별 사업체 분포

(단위: 천명)

산업	2002				2003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제주	전국			
계	17,916	23,840	42.9	35.7	18,029	24,107	42.8
농업 및 임업	3	375	0.8	2.3	4	364	1.1
어업	16	103	13.4	6.6	24	91	20.8
광업	0	11	0	5.5	3	11	21.4
제조업	529	1,416	27.2	15.7	530	1,359	28.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	28	0	0.9	0	27	0
건설업	118	910	11.5	7.5	121	925	11.6
도매 및 소매업	6,224	5,796	51.8	37.3	6,047	5,738	51.3
숙박업	6,886	3,238	68.0	67.9	7,019	3,321	67.9
운수업	195	4,932	3.8	3.1	219	5,233	4.0
통신업	25	78	24.2	14.8	25	86	22.5
금융 및 보험업	42	568	6.9	9.0	35	557	5.9
부동산 및 임대업	227	625	26.7	25.0	223	649	25.6
사업서비스업	95	643	12.9	10.6	95	626	1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업보장행정	11	356	3.0	1.5	9	361	2.4
교육 서비스업	874	581	60.0	57.3	910	590	60.7
보건 및 사업복지사업	322	588	35.3	30.1	354	601	37.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522	984	34.7	32.7	553	951	36.0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827	2,608	41.2	36.2	1,858	2,617	41.5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도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3) 기업조직 내 여성임원 비율

□ 지표의 정의

조직 내의 전체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결정들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수행을 결정하게 되며 여성과 남성의 참여수준은 이에 영향을 미침. 여성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남성과 여성의 양적 질적 격차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제약 받고 있음. 증대되는 노동시장의 여성화는 모든 수준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경제적 권력과 재생산의 역할을 공유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함. 이를 위해 경제 분야에 더 많은 여성 의사결정자가 필요함

실태

기업조직 내 여성임원의 비율관련 통계 생산되지 않음

제언

기업조직 내 여성임원 관련 통계 생산이 필요함

(4) 각종 조합 내 여성임원 비율

지표의 정의

지역사회의 농협·축협 등 1차 산업중심 단위조합의 여성임원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각종 조합 내 여성임원 비율은 지역사회참여에 있어 양성평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임. 조합 내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각종 조합에 여성임원 30% 할당제 도입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권고해야 함

실태

각종 조합에 대한 여성비율이 발표되지 않아 현재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바탕으로 추계해보면 여성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임

<표 50> 노동조합 가입 현황(2003. 12)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단위노동조합				지부 또는 분회 등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조합수	조합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제주도	67	5,141	4,510	631	67	5,141	4,510	631	-	-	-	-
비율			87.7	12.2			87.7	12.2				
제주시	36	4,485	3,986	499	36	4,485	3,986	499	-	-	-	-
비율			88.8	11.1			88.8	11.1	-	-	-	-

자료: 제주시 성별통계

제언

여성은 가입 조건 등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하여 어려운 실정으로 가입 조건 완화 및 임원할당제 등의 조치가 필요함

5) 여성 CEO비율

지표의 정의

CEO가운데 여성 CEO가 차지하는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기업 CEO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 CEO의 등장은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에 필수적임. 따라서 기존의 가부장적 기업문화에서 벗어나 양성이 수평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여성 CEO의 양성이 필요함

실태

현재 지역 CEO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임

5. 교육부문

1) 양성평등교육

(1) 양성평등 교육 및 과정의 운영

지표의 정의

모든 학생들에게 성에 관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제반 능력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적 교육운영 실태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학교교육의 주된 목표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에 관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제반 능력을 준비시키는 것이나, 교육과정과 결과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띠고 있음. 이는 교육내용의 선정과 구성방식, 교사의 교수활동이나 생활지도, 진로지도를 비롯한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잔존하기 때문임. 따라서 양성평등 교육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교사들의 양성평등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함

실태

(2) 성희롱 예방교육횟수

지표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횟수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잔존하는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으로 말미암아 제도적·외형적 차별보다는 간접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성희롱의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희롱 발생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남녀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실태

현재 기관별 최소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공개되어야 함.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의 ‘성희롱방지노력’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정도를 추측해보면, 2002년 현재 ‘성희롱방지 노력’에 대해 여성 27.9%, 남성 24.9%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표 51>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2002)

(단위: %)

지역	업무	인사 관리	임금	복지 후생	장래성	근무 환경	인간 관계	근로 시간	성희롱방지 노력	
제주	여	38.0	26.3	16.7	17.5	21.3	28.7	42.2	27.2	27.9
	남	36.5	16.3	17.6	16.0	16.9	22.8	42.6	20.2	24.7
전국	여	31.1	13.6	15.2	12.0	15.2	22.3	36.4	22.6	21.7
	남	33.4	18.1	15.6	13.4	17.4	20.9	36.2	19.5	21.4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2) 능력개발 교육 및 재정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여성중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지표의 정의

각종 평생교육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여성중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교육정보에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회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여성의 평생교육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반과 여건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여성 중심적인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중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교육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서비스, 학습상담 서비스 등의 체계적 제공이 필요함

□ 실태

현재 여성관련 평생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은 실정임

2003년 제주도 여성정책 사업에서는 여성사회교육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남제주군 여성문화회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비율

□ 지표의 정의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 여성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비중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부담과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는 능력개발에 대한 기회를 상실하게 함. 또한 여성 정체성에 기반 한 성별 분리적인 교육은 열악한 여성의 삶을 구조화하고 있음. 이는 유능한 여성인력을 사장하는 국가적 낭비이며 여성 개인의 능력 발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성별에 따른 제약 없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갖도록 각종 기관에서 훈련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함

□ 실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은 전무한 실정임

(3)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프로그램 실시횟수

□ 지표의 정의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횟수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차세대 여성 지도자 육성프로그램은 여성들에게 학습기회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으로써, 여성들의 지속적인 세력화를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음

□ 실태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프로그램을 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친목을 위한 성격이 강한 실정임

(4) 여성취업알선 비율

□ 지표의 정의

직업안정기관의 구직자에 대한 총 취업알선 중 여성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취업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여성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실태

성별 취업알선율은 2003년 현재 여성은 86.7%, 남성은 56.2%로 여성이 높음. 학력별 취업알선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132.4%, 남성은 78.0%로 모두 ‘전문대졸’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52> 성별 취업알선 비율 및 취업률

(단위: %)

교육 연도, 성별	전체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1998							
전체	80.8(5.1)	23.6(3.3)	33.7(1.1)	77.3(4.1)	121.3(8.4)	85.6(5.4)	13.3(0.0)
여자	109.3(6.7)	13.0(1.7)	11.5(0.0)	103.8(4.7)	155.5(11.0)	131.4(8.6)	0.0(0.0)
남자	68.1(4.3)	31.1(4.3)	38.8(1.3)	66.5(3.9)	99.6(6.8)	68.3(4.2)	13.3(90.0)
2003							
전체	74.1(18.7)	40.5(34.5)	35.4(22.7)	67.9(13.9)	113.0(18.8)	78.6(14.0)	66.7(-)
여자	86.7(21.5)	42.4(37.5)	35.1(25.3)	80.6(14.8)	132.4(20.5)	98.4(15.6)	75.0(-)
남자	56.2(14.9)	33.7(24.0)	35.7(20.1)	52.6(12.9)	78.0(15.7)	58.7(12.5)	64.3(-)

주: ()는 취업률임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5) 재교육사업 예산 중 여성재교육 사업비 비율

지표의 정의

재교육 사업 총 예산에 대한 여성의 재교육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제사회부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여성 능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다양한 여성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물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함. 여성능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함

3) 학교교육

(1) 성별 평균교육년수

지표의 정의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 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 국민에 대한 평균교육년수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학력은 사회적 성취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남녀 성차를 떠나 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평균교육년수는 교육수준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성별 평균교육년수는 지역사회 내 교육기회의 평등정도와 의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활용할 수 있음. 우리사회에 있어 국민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년수 또한 남녀간의 차이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실태

전체적으로 평균교육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0.2년으로 1990년에 비하여 1.1년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국 평균인 10.7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임. 성별 평균 교육년수를 비교하면, 2000년 현재 남성의 평균교육년수는 11.5년,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9.0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교육년수가 2.5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년수에 있어 성차를 보이고있음. 연령별로 보면 20-29세를 기점으로 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평균 교육년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러한 현상은 양성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임

<표 53> 평균교육년수

(단위: 년)

연도		평균	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1990	전체	9.1	8.0	12.1	10.8	8.7	4.4
	여자	7.7	8.0	11.8	9.9	7.5	2.6
	남자	10.5	8.0	12.4	11.6	10.2	7.4
1995	전체	9.7	6.5	12.7	12.0	9.9	5.4
	여자	8.5	6.6	12.8	11.3	8.7	3.4
	남자	11.1	6.4	12.7	12.6	11.0	8.3
2000 제주	전체	10.2	4.2	13.3	12.9	11.0	6.2
	여자	9.0	4.5	13.4	12.5	10.0	4.1
	남자	11.5	4.0	13.2	13.4	12.1	9.1
전국	전체	10.7	5.7	13.3	13.1	11.4	7.2
	여자	9.8	6.0	13.3	12.6	10.5	5.5
	남자	11.7	5.3	13.2	13.6	12.3	9.3

주: 계산방법: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초급 및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이상중퇴는 14년으로 계산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2) 성별 대학진학률

□ 지표의 정의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대학진학률에 따르는 성별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됨. 교육년수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감소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성별차이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교육에 있어 양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실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은 100%이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남학생이 99.6%, 여학생이 99.5%로 나타남.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률은 남학생 94.7%, 여학생 90.5%로 전국평균을 웃돌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성차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표 54> 성별진학률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률		졸업자		진학률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제주	4,013	4,230	100.0	100.0	3,142	3,325	99.5	99.6	3,127	3,423	90.5	94.7
전국	327,865	365,211	100.0	100.0	283,725	316,653	99.7	99.7	281,364	307,186	79.7	82.8

주: 대학교는 산업대와 방송통신대 포함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3) 학교교원 성별비율

□ 지표의 정의

학교급별 교원의 성별 구성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전체적으로 여교사의 비율은 높으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여교사의 비율은 낮음. 교직의 특성상 여교원 비율의 차이가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함

□ 실태

2005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여성교원의 비율을 분석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여성교원의 비율이 매우 높음. 고등학교의 경우 여성교원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음.

지역 여성교원비율을 자세히 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여자교원은 학교급별로 증가추세임. 그러나 2005년 현재 초등학교에 여자교원이 68.9%로 치우쳐있는 반면 고등학교 여자교원은 30.3%로 매우 낮은 추세임

<표 55> 학교급별, 성별 교원수(고등학교 이하)

(단위: 명, %)

연도, 학교급	전체	여자비율
1999	초등학교	51.5
	중등학교	44.0
	고등학교	17.3
2000	초등학교	63.3
	중등학교	48.4
	고등학교	20.4
2004	초등학교	67.8
	중등학교	50.2
	고등학교	29.6
2005	초등학교	68.9
	중등학교	49.8
	고등학교	30.3
2004 (전국)	초등학교	70.0
	중등학교	61.5
	고등학교	37.4

자료: 1) 제주도교육청, 《교육통계연보》, 2005.

2) 교육청, 간추린교육통계, 2005.

6. 사회참여부문

1) 참여역할

(1) 여성활동 지원비율

지표의 정의

문화, 예술, 체육 참여 확대 지원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그 범위와 분야에 있어서 다양해졌으며, 그를 통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큼. 여성 활동에 대한 지원비율의 정도는 지역사회의 여성인력의 육성과 활용에 대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음. 여성들이 펼치고 있는 사회활동을 측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제반 활동에 여성도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실태

여성창작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되어야함

(2) 여성 국제교류지원율

지표의 정의

여성단체 등의 국제교류 지원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2001년 여성부 설립 및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2002-2005)으로 3차 선임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여성지위향상 및 여성정책 주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 및 국제교류의 필요성이 대두 됨. 변화하는 국제상황에 부응하여 지방차원에서도 국제교류 및 국제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이 요구됨

실태

자치단체별로 여성단체의 국제교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단체별 지원통합관리가 필요함.

2003년 제주도 여성정책사업은 여성단체국제교류 사업지원 해외연수,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NGO상근활동가 중 여성회원 및 단체장 비율

지표의 정의

NGO상근활동가 중 여성회원 및 단체장의 여성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지역 NGO상근활동가 중 여성회원 및 단체장은 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성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 시민운동에 있어서 양성의 세력 균등화를 이룩하고 양성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 단체장의 선출을 위한 각 단체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됨

실태

(4) 여성자원봉사 참여율

□ 지표의 정의

15세 이상 조사인구 중 자원봉사 등록인원에 대한 여성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자원활동이 유휴인력의 활용의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움직임에 보임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여성의 참여는 확대되는 추세임.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문영역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 실태

2003년 현재 성별 자원봉사 참여율은 여성 22.8%, 남성 24.0%로 남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남. 여성은 이 가운데 ‘환경보전’ 43.3%, ‘복지시설’ 41.3%이며, 남성 또한 ‘환경보전’ 59.4%, ‘복지시설’ 18.2%로 남녀 모두 유사한 자원활동 유형을 보이고 있음

<표 56> 성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성	현재 활동						
	환경보전	국가, 지역행사	자녀교육	복지시설	재해돕기	기타	
1999							
전체	19.0	26.7	14.0	17.5	31.6	10.5	17.9
여자	19.9	27.4	10.1	27.3	39.1	5.4	13.8
남자	17.9	48.2	18.9	5.5	22.4	16.7	23.0
2003							
전체	23.3	51.3	14.3	7.9	29.9	8.2	13.7
여자	22.8	43.3	11.1	10.3	41.3	3.4	9.7
남자	24.0	59.4	17.7	5.2	18.2	13.1	17.7
2003(전국)							
전체	14.6	38.0	10.4	8.7	38.4	10.0	14.9
여자	14.0	31.4	8.6	14.1	46.9	5.4	11.4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 제언

여성들의 자원봉사참가영역은 돌봄기능의 확장으로, 자원봉사 영역의 확장을 통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해야함

(5)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지표의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 대한 성별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은 경제상황이 변할 때마다 가장 일차적으로 해고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활용되는 있음. 이를 통해 그 간 여성고용을 개선하는데 있어 양적인 진전은 있었으나 여성의 근로조건상의 개선은 이루어진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태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995년 57.5%에서 금융위기 후 2000년 60.7%로 오히려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2003년 현재 62.4%로 하락함. 반면 남성은 1995년 75.7%에서 2000년 75.5%, 2001년에는 75.3%으로 낮아지다 2003년 현재 79.3%로 급격히 성장함

<표 57> 성별 경제활동 인구 추이

(단위: 천명)

연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90	193	174	110	130	57.0	74.7	
1995	200	177	115	134	57.5	75.7	
2000	206	188	125	142	60.7	75.5	
2001	208	190	128	143	61.5	75.3	
2002	209	192	133	145	63.6	75.5	
2003	제주	211	195	132	154	62.4	79.3
	전국	19,220	18,119	9,397	13,518	48.9	74.6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6) 시민단체 내 여성참여비율

□ 지표의 정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여성참여정도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시민단체 내 여성참여비율은 사회활동에 대한 양성평등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남성중심의 NGO활동을 여성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에 대한 성 주류적 인식이 필요함

□ 실태

2003년 현재 여성의 사회단체 참여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사교단체이며, 그 다음으로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남성의 경우 사회단체 참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은 감소하였음

<표 58> 성별 사회단체참여도

(단위: 천명)

구분	참여성									참여 않음
	소계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스포츠 레저단체	사회봉사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기타	
1999										
전체	100	58.3	15.0	12.0	9.9	0.6	0.8	1.0	2.6	67.9
여자	100	56.2	22.9	3.2	13.9	0.4	0.3	1.1	1.9	74.6
남자	100	59.7	9.5	18.2	7.1	0.6	1.1	0.8	3.0	60.6
2003										
전체	100	74.7	7.8	9.9	5.3	1.0	1.2	-	-	42.2
여자	100	76.0	10.6	4.9	6.6	0.8	1.1			76.7
남자	100	73.4	5.3	14.5	4.1	1.2	1.4			37.4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9, 2003 재구성.

□ 제언

각 시민단체의 회원 수 등 각종 활동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 생산이 요구됨

2) 전문직 활동

(1) 전문직 내 여성비율

□ 지표의 정의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문필가·컨설턴트 등 전문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전문직 내의 여성 비율은 낮은 실정이며 여성이 선호하는 교육직의 경우도 관리직에 있어 성별 분화가 존재하고 있음

□ 실태

교육전문직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총 96명중 14명으로 14.6%에 불과함. 연도별로 비율은 1990년 0.1%, 1995년 2.0%, 2000년 9.6%, 그리고 2004년 1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59> 전국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단위: 명, %)

연도	합계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계	여자	여자 비율	계	여자	여자 비율	계	여자	여자 비율
1995	4,199	378	9.0	868	39	4.5	3,331	339	10.2
2003. 3	3,831	539	14.1	921	47	5.01	2,910	539	14.1
2004	3,531	679	19.2	691	60	8.7	2,840	619	21.8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4.

<표 60> 제주도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단위: 명, %)

연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							
전체	96	108	94	93	93	96	96
여자(비율)	1(0.1)	2(2.0)	9(9.6)	9(9.7)	11(11.8)	11(11.5)	14(14.6)
연구사							
전체	25	26	21	21	21	22	22
여자(비율)	-	1(3.8)	3(14.3)	4(19)	4(19)	5(22.7)	7(31.8)
장학사							
전체	39	44	39	39	39	40	40
여자(비율)	1(2.6)	1(2.3)	5(12.8)	5(12.8)	6(15.4)	6(15)	6(15)
연구관							
전체	10	10	9	9	9	10	10
여자(비율)	-	-	1(12.1)	-	-	-	-
장학관							
전체	18	18	21	24	24	24	24
여자(비율)	-	-	-	1(4.2)	1(4.2)	-	1(4.2)
교육장/교육감							
전체	3/1	3/1	3/1	3/1	3/1	3/1	3/1
여자(비율)	-	-	-	-	-	-	-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3) 양육여건

(1) 출산휴가제도 남녀이용률

지표의 정의

출산휴가에 대한 남녀이용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출산관련 휴가제도의 경우 대부분 산전산후여성이 이용하고 있으며, 90일로 휴가기일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음. 출산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위해 남성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실태

현재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 남성의 이용률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유용함. 그러나 이에 대한 성별통계의 산출이 부재함

(2) 육아휴직제도 남녀 사용률

지표의 정의

육아기간동안 직장을 쉬게 해 주는 제도의 남녀 이용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계

일과 가사라는 두 가지 역할을 여성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함. 육아휴직제도는 자녀의 육아를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를 공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 최근 가족중심문화의 확산으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성별비율은 관찰함으로써 남녀가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의 확산정도도 파악할 수 있음

실태

앞서 살펴본 출산휴가에 대한 성별통계와 함께 생산되어야할 통계임

(3) 보육시설 확충비율

지표의 정의

보육시설의 확충정도

□ 양성평등과의 관계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정 내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여성들의 출산·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지속적인 능력발전을 위해서는 영아전담시설 및 시간제 보육시설 확충 등 질 높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실태

보육시설수 및 원아수를 살펴보면, 2003년 현재 보육시설 수는 362개이며, 국공립 11개, 민간 302개, 직장 5개, 가정탁아 44개임. 보육시설의 총 원아수는 19,360이며 이 가운데 국공립 579명, 민간 16,848명, 직장 303명, 가정탁아 630명으로 조사됨. 연도별로 보육원아수와 더불어 보육시설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6> 운영주체별 보육 시설수

(단위: 개소, 명)

운영주체	보육시설수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시설수	원아수	시설수	원아수	시설수	원아수	시설수	원아수	시설수	원아수	
1995	143	6,828	8	459	78	5,755	1	97	56	517	
2000	307	15,709	10	610	142	4,929	6	340	4	594	
2001	316	16,535	10	619	155	5,723	4	276	41	546	
2002	333	16,847	10	605	278	15,312	4	280	41	650	
2003	제주	362	19,360	11	579	302	16,848	5	303	44	630
	전국	24,142	858,345	1,329	103,474	13,644	640,545	236	10,391	8,933	103,935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4) 직장보육시설 확보율

□ 지표의 정의

전체 직장에 대한 보육시설의 확보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계

직장보육시설은 현재 5개 시설에 303명의 원아가 수용되고 있음. 여성인력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불가피함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친보육적 기업문화

의 정착이 요구됨.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보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기업이 함께 보육에 관심을 둘 때 확대 될 수 있음

□ 실태

<표 63> 운영주체별 보육 시설수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2003년 현재 5개의 직장보육시설을 두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원아수는 303명임

(5) 영유아 보육시설 개선비용

□ 지표의 정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

□ 양성평등과의 관계

보육에 대한 불안감은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개선은 일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음. 특히, 보육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경제활동이 필요한 저소득층 여성들이 보육시설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공보육의 확대가 필수적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비용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의 지원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실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녀양육은 자녀의 부모나 가족 및 친인척이 부담하는 실정임. 지역의 경우 학원에 대한 비중이 22.8%로 비교적 높은 실정으로 지역 여건이 반영된 결과임

<표 62> 10세 이하 자녀의 양육실태

(단위: %)

구분	계	자녀의 부모	가족 친인척	파출부 가정부	유치원	보육 시설	학원	집에 그대로 둠	기타
제주	100.0	44.3	19.6	0.7	4.2	16.8	22.8	11.6	0.4
전국	100.0	62.6	14.8	1.0	5.3	7.5	14.1	6.9	0.1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7. 사회복지부문

1) 권익

(1) 요보호여성 비율

□ 지표의 정의

전체 여성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매춘여성, 여성한부모, 미혼모, 가출여성, 독거여성 등)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호를 필요한 상태에 놓인 여성을 의미. 대부분 모자보건문제를 비롯, 출산, 이혼, 가출, 윤락, 미혼모, 영세미망인, 고령무의탁여성노인, 저소득근로여성 등이 대상임. 현행 여성복지정책은 정책의 대상은 요보호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복지내용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는 1회성 물질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함

□ 실태

현재 요보호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혼모, 가출여성, 매춘여성 등에 대한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음. 제주도의 미혼모 시설은 1개소가 있음

<표63> 가구의 세대별 분포 및 평균가구원수(2000)

(단위: 가구, %)

	총가구수	여성 1인가구	편모와 미혼자녀	편부와 미혼자녀	미혼모	가출여성	매춘여성
제주 전체	158(100.0)	26(16.5)	11(6.8)	3(1.8)	-	-	-
여자	37(100.0)	18(48.6)					
전국 전체	14,312(100.0)	2,224(15.5)	220(1.5)	904(6.3)			
여자	2,653(100.0)	1,279(48.2)			-	-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조사보고서》, 2001.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2) 남녀 노인복지서비스 비율

□ 지표의 정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에 수용된 성별 노인의 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노령인구 증가, 노인부양 등으로 노인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부족한 형편임. 노령인구의 성비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여성노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여성노인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여성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여성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대책의 추진이 필요

□ 실태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1년 8.3%로 전국 비율 7.9%보다 높은 편임. 제주도 노인인구의 성비를 보면 여성노인의 비율이 68.9%를 차지함. 그리고 제주도의 독거노인은 2003년 11,18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별은 구분되어 있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이 3,74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며, 이중 여성노인은 2,800명으로 74.8%로 높게 나타남.

2006년 제주도 예산에서 사회개발비는 271,977,673천원이며, 이중 사회보장비가 85,898,40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함. 이 가운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2,287,260천원으로 14%, 경로복지는 19,727,718천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음.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노인복지시설 수는 8개소 시설 453명이고, 이 중 여성은 346명으로 76.4%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료양로시설은 3개 시설 93명, 무료노인요양시설 6개 334명, 실비 및 유료시설을 1개 시설 26명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보면 수용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수는 변동 없음

<표 64>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 및 여성비율

(단위: 개소, 명)

연도	전체				무료양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시설	
	시설수	수용자			시설수	연말수용자	시설수	연말수용자	시설수	연말수용자
		계	여자	여성비율						
2002	299	18,000	13,432	74.6	91	4,522	143	9,783	65	3,244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표 65> 제주도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 및 여성비율

(단위: 개소, 명)

연도	전체				무료양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 및 유료시설	
	시설수	수용자			시설수	연말수용자	시설수	연말수용자	시설수	연말수용자
		계	여자	여성비율						
1998	8	262	-	-	5	151	3	111	-	-
1999	8	290	-	-	5	161	5	129	-	-
2000	8	307	-	-	5	164	3	143	1	-
2001	8	358	-	-	5	184	3	159	1	15
2002	8	393	-	-	4	141	4	230	1	22
2003	8	453	346	76.4	3	93	6	334	1	26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3) 남녀 장애인복지서비스 비율

□ 지표의 정의

총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성별 복지서비스의 비중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더욱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여성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관내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또한 장애인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으로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의 기반조성이 필요함

□ 실태

도내 등록 장애인은 2005년 6월 현재 21,663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은 12,825명(59.2%), 여성은 8,838명(40.8%)임. 제주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⁵⁾의 제주도 장애여성 실태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장애여성의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가 37.7%로 되어 있으며, 직업종사자별 장애유형에서도 여성의 경우가정주부 41.2%, 무직 27.0%로 장애여성의 교육수준 및 사회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장애유형별 등록에서 보면 대부분 남성등록 장애인수가 높은 비중이나 간질장애의 경우가 여성이 59.7%, 발달장애 등록은 80.7%로 남성보다 많이 등록되어 있음

5) 제주DPI는 지부로 세계적으로 DPI(장애인당사자조직)가 결성으로 됨에 따라 한국 DPI가 1986년 발족되면서 제주지부로 출범하게 되었다.

<표 66> 제주도 성별 장애유형

(단위: 명, %)

장애 유형	합계	지체	뇌 병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장애	간질 장애
계	21,663	10,427	1,876	2,966	1,868	178	2,262	107	885	497	182	135	58	13	90	119
남	12,825	6,457	1,039	1,704	974	139	1,301	96	484	277	109	100	42	9	46	48
여	8,838	3,970	837	1,262	894	39	961	11	401	220	73	35	16	4	44	71
여성 비율	40.8	38.1	44.6	42.5	47.9	21.9	42.5	10.3	45.3	44.3	40.1	25.9	27.6	30.8	48.9	59.7

자료: 제주도DPI, 전국장애인등록수, 2005.

□ 제언

장애등록 현황은 장애유형에 따른 성별통계가 생산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있어 유형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 모색이 필요함

2) 복지여건

(1) 여성편익시설 설치 비율

□ 지표의 정의

총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들의 설치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의 경우 상대적 불평등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구체적인 복지제도를 통하여 보완되어야함. 그러나 여성과 관련된 각종 시설 및 서비스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으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이 요구됨

□ 실태

2001년 현재 모자보호시설 1개소, 여성회관 2개소이며, 2003년 현재 여성폭력관련 서비스시설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포함하여 12개소가 설치됨

<표 67> 여성복지시설수

(단위: 개소)

연도	여성폭력관련 서비스시설							여성 1366	모자보호 시설	여성 회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1990	-	-	-	-	-	-	-	1	1	
1995	-	-	-	-	-	-	-	1	1	
2000	-	-	-	-	-	-	-	1	2	
2001	-	-	-	-	-	-	-	1	2	
2003	제주	3(1)	1(1)	4	1	1	1	1	-	
	전국	122(12)	16(3)	185	42	14	38	1	37	

주: ()는 장애인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2 재구성.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2) 성별공적부조 대상수

□ 지표의 정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수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여성비율을 통해 여성의 빈곤화를 가늠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그러나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 정책이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여전히 빈곤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실태

2003년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는 1,8420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10,892명, 남성은 7,528명으로 나타남. 기초생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경우가 5,237명으로 전체의 28.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여성은 2,626명, 남성은 2,611명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65세 이상으로 4,904(26.6%), 이 중 여성은 3,963명, 남성은 941명으로 나타남

<표68> 전국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2)

(단위: 명, %)

연도	계	18세 미만	18-30	31-40	41-50	51-60	61-64	65세 이상
전체	1275,625	310,187	134,822	124,281	191,616	119,837	65,631	629,251
여자	742,458	152,858	66,588	74,016	94,829	64,209	43,409	546,504
전체	123.5	24.3	10.6	9.7	15.0	9.4	5.1	49.3
여자	140.4	20.6	9.0	10.0	12.8	8.6	5.8	73.6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표 69> 제주도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1			2002			2003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전체	18,046 (100.0)	10,698 (100.0)	7,348 (100.0)	17,887 (100.0)	10,647 (100.0)	7,240 (100.0)	18,420 (100.0)	10,892 (100.0)	7,528 (100.0)
18세 미만	5,108 (28.3)	2,523 (23.6)	2,585 (35.2)	4,994 (27.9)	2,503 (23.5)	2,491 (34.4)	5,237 (28.4)	2,626 (24.1)	2,611 (34.7)
18-30세	2,079 (11.5)	1,086 (10.2)	933 (13.5)	1,995 (11.2)	1,032 (9.7)	963 (13.3)	1,984 (10.8)	1,024 (9.4)	960 (12.8)
31-40세	1,720 (9.5)	994 (9.3)	726 (9.9)	1,546 (8.6)	912 (8.6)	634 (8.8)	1,555 (8.4)	921 (8.5)	634 (8.4)
41-50세	2,135 (11.8)	1,037 (9.7)	1098 (14.9)	2,205 (12.3)	1,005 (9.9)	1,150 (15.9)	2,318 (12.6)	1,106 (10.2)	1,212 (16.1)
51-60세	1,652 (9.2)	861 (8.0)	791 (10.8)	1,558 (8.7)	771 (7.2)	787 (10.9)	1,579 (8.6)	751 (6.9)	828 (11.0)
61-64세	861 (4.8)	527 (4.9)	334 (4.5)	850 (4.8)	520 (4.9)	330 (4.6)	843 (4.6)	501 (4.6)	342 (4.5)
65세 이상	4,491 (24.9)	3,670 (34.3)	821 (11.2)	4,739 (26.5)	3,584 (36.2)	885 (12.2)	4,904 (26.6)	3,963 (36.4)	941 (12.5)

자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3) 한 부모사업 지원비율

□ 지표의 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비율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최근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해 한 부모가정은 꾸준히 증가추세임. 한 부모가정의 여성은 양육자이자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여성가장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은 불가피하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여성의 위치는 한 부모가정의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또한 돌봄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증가하는 한 부모가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함

□ 실태

전국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제주도가 가장 높으며, 혼인형태별로 살펴보면, 이혼을 통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5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저소득한부모가구는 모자가정세대 70%, 부자가정세대 30%로, 모자가정세대가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70> 혼인형태별 여성가구주 분포

(단위: 천명, %)

	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여자가구주비율
제주도	37 (100.0)	6 (16.2)	5 (13.5)	22 (59.5)	4 (10.8)	23.4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표 71> 제주도 성별 저소득한부모가구

(단위: 세대, %)

계	저소득 한부모 가구	
	모자가정세대	부자가정세대
1,505	1,052(70)	453(30)

자료: 제주도, 《보건복지여성행정현황》, 2003.

□ 제언

제주 지역의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23.4%이며, 가구주 형태 비율에서 볼 때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59.5%로 가장 높음. 따라서 빈곤계층에 놓여있는 여성가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됨

(4) 사회복지예산에 대비 여성복지서비스예산 비율

□ 지표의 정의

사회복지 예산 대한 여성복지서비스 예산의 비중

□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여성복지는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임. 따라서 여성복지의 대상은 요보호 여성 정책에서 벗어나 일반여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미비하여, 그 사용도 일정사업에 편중되어 있음. 여성의 사회진출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고용, 육아, 교육 등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실태

2006년 제주도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에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49.9%로 42,886,203천원임. 이 가운데 유아복지 관련 예산은 사회보장비 전체 예산의 46.3%이며, 여성정책 예산 가운데 92.9%로 여성 정책예산은 1%를 겨우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표 72> 제주도 사회보장비 세출예산규모

(단위: 천원, %)

연도	일반회계	사회 개발비	사회 보장비					
			일반사회 복지비	여성정책			교육 문화센터	
				여성 복지	유아 복지			
2005	838,992,393 (100.0)	244,647,738 (29)	124,147,803 (15)	80,425,463 (10)	43,422,336 (5)	4,653,400 (0.06)	37,747,133 (4)	1,021,803 (0.1)
2006	843,737,089 (100.0)	271,977,673 (32)	85,898,401 (10)	43,012,198 (5)	42,886,203 (5)	2,595,887 (0.31)	39,844,357 (4.7)	445,959 (0.05)

자료: 제주도 예산 2005, 2006.

□ 제언

사회보장비 가운데 여성관련 예산의 별도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보육정책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돌봄정책의 연장선에서 함께 논의 되고 있기 때문으로, 예산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함

3) 건강관리

(1) 건강증진관리 예산비율

지표의 정의

총 예산에 대한 건강증진관리 예산의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개인의 건강 손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의 손실이므로, 건강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각 성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정보접근에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모색

실태

2003년 제주도 여성정책 사업은 여성건강증진 대책강화의 차원에서 임신부·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보조(1,519천원), 모자보건 증진사업(6,480천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5,000천원) 그리고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500,000천원)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

제언

건강증진 대책강화 차원에서 1회성의 행사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8. 정보화 부문

1) 정보활용기반

(1) 성별 컴퓨터 문맹비율

지표의 정의

총 인구 가운데 성별 컴퓨터 문맹의 비율

양성평등과의 관련성

컴퓨터의 이용정도는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수 능력임. 따라서 컴퓨터의 문맹은 사회로부터 소외 될 가능성이 있음. 기존의 정보화 사업은 간단한 교육 중심으로, 전업주부인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센터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여성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실태

컴퓨터 사용능력을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여성의 경우 전혀 쓸 줄 모른다는 비율이 56.4%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46.9%로 여성이 남성보다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73> 성별 컴퓨터 사용능력

(단위: %)

연도, 성	전혀 쓸 줄 모름	조금은 다룰 수 있음	꼭 필요한 S/W는 다룰 줄 앎	전문적인 지식과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음	
1997					
전체	60.8	33.5	5.0	0.7	
여자	66.1	28.4	4.7	0.8	
남자	53.8	33.6	9.8	2.9	
연도, 성	사용할 줄 모름	간단한 게임정도	문서작성, 인터넷이용 등	응용소프트웨어 인터넷거래	전문가 수준
2000					
전체	50.9	11.8	34.9	1.9	0.5
여자	54.6	10.9	32.9	1.4	0.2
남자	46.9	12.7	37.1	2.4	0.8
2002					
전체	39.8	4.3	45.0	10.4	0.6
여자	46.2	3.7	39.2	10.5	0.3
2002(전국)					
전체	37.0	10.5	41.1	9.5	1.9
여자	43.5	10.2	38.3	7.3	0.8

자료: 1)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여성통계연보》, 2004.

2) 한국여성개발원, 《지역여성통계》, 2004.

□ 제언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컴퓨터 사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인을 위한 컴퓨터 활용 교육과정 개설 및 인터넷 활용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노인복지시설 무료 설치 등 다양한 복지지원이 필요함

V. 결론: 양성평등지표의 활용 및 과제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양성평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산된 통계를 바탕으로 8개 부문을 설정하여 각 지표가 선정될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았다. 지표개발을 위해 각각 생산되거나 생산을 희망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실태분석에 따른 양성평등지표가 지니고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지표는 남성과 여성 어느 하나의 성에 치중하지 않고 양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지표를 통해 한 성에 지배적인 영역을 밝혀내고 구조적인 원인을 통해 평등을 위한 정책적·교육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성평등지표는 새로운 정책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 지표는 현재를 드러내는 척도로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자료로 충실하게 활용되며 나아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출발점이 된다.

셋째, 양성평등지표의 설정은 관련 공무원의 의식을 성 주류화로 전환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모든 정책이 성 주류화를 기본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정책입안 담당자들의 성 인지적인 관점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표 설정은 담당공무원이 지표에 있어 성 불평등적인가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평등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정값이 필요하다. 즉, 각 지표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져야하나 현실적으로 지역성이 반영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은 미비한 실정이다. 설령 지역성이 반영된 통계가 생산되더라도 지방정부간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생산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사회지표로 양성평등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보로서 지표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현재 지역사회에 있어 양성간 사회적 상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등 지표가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화가 실현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행정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이 구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표이며,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표를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양성평등지표의 도입은 지표를 통해 양성평등 정도를 가늠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도입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환류 등 정책적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은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새로운 담당자가 성인지적인가로부터 시작하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넷째, 양성평등지표의 확정은 자칫 행정 각 부서의 양성평등적인 정책 개발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가시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역기능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양성평등성이 내면화 되지 않은 데 요인이 있다.

다섯째, 지표는 고정불변이 아닌 지역 사회의 여건과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지표 설정을 통해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수준을 조기 달성하는 것은 자체 지역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양성평등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1차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실천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각 영역에 대한 모형 및 개발과정은 양성평등의 표준절차를 마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지표의 시사점과 한계를 통해 앞으로 양성평등자료가 활용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양성평등 지표는 각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각 영역을 통합해서 양성평등 정도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영역에 대한 양성평등이 점검되고 각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냄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 할 수 있는 정책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양성평등지표로 개발되기 위한 다양한 통계 생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물성적인 통계에서 성별분리 통계를 통해 적극적인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양성평등지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가부장적인 지배 문화를 극복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지표를 개발하고 척도화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앞으로 각 부문별 양성평등지표의 실천지표와 모형개발을 통해 표준적 절차 마련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행정적·정치적 환경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좌표의 설정은 물론 앞으로 나아갈 실천지표와 그에 관한 모형이 추가적으로 연구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남식(2001). “성주류화 정책과 생산적 복지.” 『여성과 사회』 제12호. 서울: 한국여성연구소
- _____. “페미니즘과 성주류화의 전략.” <http://www.demos.or.kr/issue/12.hwp>
- 강이수(1990), “통계로 본 한국 여성의 지위.” 한국여성연구회. 『여성과 사회』 제1권
- 김검훈, 이갑숙(2005). “지방정부차원의 양성평등지표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의 지표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경주교육문화회관
- 김경희(2003).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서울: 한국여성학회
- 김미경(2000). 『여성주의적 유토피아, 그 대안적 미래』. 서울: 책세상
- 김원홍 외(2003). 『오늘의 여성학』.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재득. “우리나라 양성평등정책의 현황과 과제-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인간관계학회. 『한국인간관계학보』 제7권 제1호
- 노동부(1999). 『여성과 취업』
- 모저.K(2000).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장미경외 2인 역. 서울: 문원출판사
-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3).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정책인식, 요구도·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대화가정학회. 『대화가정학회지』 제41권 제8호
- 서동희, 김영화, 김미경. “남녀평등도시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보』 6권 1호. 서울: 한국인간관계학회
- 여성부(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한국사회연구(1994). 『여성과 한국사회-한국여성학 시론』.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연합뉴스 2005. 11.30일자
- 우은복(2002).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의 과제.” 『한국교육연구』 제8권 1호. 서울: 한국교육연구
- UNDPI(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 UN위임(1994).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여성-발전과 여성역할 세계조사 1994』. 장성자 역(1997).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정순영 외 2004. 『유엔발전전략의 성인지적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주간한국 2005. 10. 6일자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2002, 2004). <<제주여성통계연보>>

제주시(2003). 《통계로 보는 제주시 여성의 모습》
 제주여민회(2003), 《2003년 제주도 여성정책 및 예산 성인지적 분석》, 성인지분석
 자료집. 미간행
 쿨라빅.T(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역. 서울: 새물결
 통계청(2003).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여성개발원(2004). 《여성통계연보》
 ----- . 《여성취업실태조사》
 ----- . 《여성사회지표개발》

참여 연구진

책임연구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공동연구	김진영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보조	부승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

인쇄일 2005. 12

발행일 2005. 12

발행인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발행처 제주발전연구원

인쇄처 재승

ISBN 89-88021-99-1 933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